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전승 과정 및 사설 연구

김 선 영*

차 례

1. 들머리	3.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사설 구성과 제의적 특성
2.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역사적 형성과 전승	1) 당산굿과 동네 우물굿: 마을공동 체의 안녕
1) 아미농악의 탄생과 부산고분도 리걸립	2) 성주굿과 가정풀이: 생활공간의 복락
2)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전승 과정	3) 용왕굿: 생업터전으로서의 바다 와 액막이
3) 부산고분도리걸립 ‘상쇠 및 풀 이’ 전승 계보	4. 마무리

국문초록

부산고분도리걸립은 부산의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음력 1월 초사흘부터 정월대보름까지 마을의 무사안녕과 벽사진경을 기원하며 연행한 지신밟기이자 걸립굿으로 지역 공동체의 민간신앙과 민속예술이 결합된 대표 무형유산이다.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 부산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로 형성된 아미농악의 지신밟기 소리가 오늘날 부산고분도리걸립으로 계승·발전된 전승 과정과 사설에 관한 연구이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은 당산굿·동네 우물굿·성주굿·용왕굿·판굿 등 동네 마당으로 구성되며 마을 공동체와 각 가정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는 의례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둘째 마당의 성주굿은 영웅 서사구조를 갖춘 세밀한 사설과 점층적 장단 전개를 통해 공동체의 염원을 극대화하는 연행미학적 성취를 보여준다. 셋째 마당 용왕굿은 부산항 인근의 어업 관련 상권을 주 활동 무대로 삼은 걸립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연희로 자리한다. 또한 상쇠·부쇠가 성주굿과 지신풀이를 각각 분담하여 구송하는 방식은 풍부한 사설의 내용과 다양한 의례를 효과적으로 연행하기 위한 부산고분도리걸립만의 고유한 형식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부산고분도리걸립의 특성은 단순한 민속 의례를 넘어 공동체의 삶과 가치관, 결속을 반영하는 지역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전통 민속예술 분야의 전승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시급하다. 본 연구는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전승 과정과 사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무형유산의 정체성과 더불어 그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나아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무형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교육자료로서 기능하고, 궁극적으로 부산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인 부산고분도리걸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부산고분도리걸립, 걸립, 지신밟기, 성주굿, 성주풀이, 아미농악

1. 들머리

1950년대 실향의 고단함 속에서도 가족이 편히 누울 집 한 채를 마련하고자 소망한 부산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 다음은 부산고분도리결립의 둘째 마당 중 ‘성주굿-목재 고르기’의 일부분이다.

“성주님이 마음을 개정하여서 저 나라님업게 상소하야 솔씨 서말서
홉을 구해다가 무주 남산에 흘쳐서 그 솔을 길러서 이 많은 백성들 집
을 지어줄 그런 안을 내었더랍니다.”

이는 집 없는 백성을 위해 성주신이 솔씨를 구해 집을 지어주는 대목으로 공동체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한국의 가신신앙(家神信仰)은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으로 오랜 시간 계승되어왔다. 그중에서도 성주신(城主神)은 집의 건립과 유지, 가족의 복락(福樂)을 관장하는 최고신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신앙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로 기능해왔다.

부산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부산고분도리결립은 음력 1월 초사흘부터 정월대보름까지 마을의 무사안녕(無事安寧)과 벽사진경(辟邪進慶)을 기원하며 진행되는 지신밟기이자 결립굿이다.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지정 초기에는 악사와 잡색 총 37명 구성으로 시작하여 오늘날 약 50여 명¹⁾의 결립패가 악기를 들고 마을 곳곳을 순회하며 연회를 펼친다. 연회는 총 네 마당으로 구성되며 그중에서도 둘째 마당의 성주굿²⁾은 성주신 일대기를 서사무가(敍事巫歌) 형식으로 풀어낸 대표적 사

1) 2026년 6월 기준, 부산고분도리결립보존회는 보유자 2명, 보유자 후보 4명, 전승 교육사 1명, 이수자 17명, 전수장학생 12명, 일반 전수생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6 구덕골 전통민속예술축제」 공연 팸플릿 참고.

2) 이 글에서는 부산고분도리결립 둘째 마당의 성주풀이이와 가정풀이를 포괄하여 집을 지키는 가신(家神)인 성주신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의례로 ‘성주굿’이라 기술한다.

레이자 공동체 신앙과 민속예술이 결합한 상징적 서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산고분도리걸립과 같은 전통 민속예술은 지역민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깊이 스며든 문화적 표현으로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지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 전통 민속예술의 전승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인 전승과 보존, 창조적 계승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무형유산의 보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현장성에 기반한 새로운 전승 전략과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글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문화콘텐츠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승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과제로서,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역사적 전승 과정, 그리고 사설에 담긴 상징성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고분도리걸립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들벽구 개인놀이³⁾에 대한 춤사위 분석³⁾과 성주풀이의 음악적 특성 연구⁴⁾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 과정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산고분도리걸립에 관한 공식 기록은 2010년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지정신청을 위해 작성된 문헌, 즉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의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부산고분도리걸립」과 「부산고분도리걸립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에 근

3) 김선영, 「<부산고분도리걸립>의 들벽구놀이 연구」, 『영남춤학회誌』, 12권 3호, 2024, 33-68쪽.

4) 김정용, 「부산고분도리걸립농악 성주풀이에 대한 음악구성 연구」, 세한대학교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5; 이주현, 「부산 고분도리 걸립의 풀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5) 부산고분도리걸립의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2026년 시행 예정이다.

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는 부산고분도리걸립의 핵심인 지신밟기 사설을 담당하는 상쇠의 전승 계보가 매우 소략하게 기술되어있으며, 지난 15년간의 전승교육과 실제 연행 중 구연가창(口演歌唱)을 통해 추가로 복원되고 정립된 사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4년간의 공연 영상을 분석하고, ‘상쇠 및 풀이’ 부문 보유자인 정우수와 전승교육사(보유자 후보) 이주현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정초 지신밟기와 공연 중 연행되는 사설을 채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형유산 지정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사설을 추가로 보완하였다. 또한 부산지역말의 발음을 최대한 반영하고, 한자어는 병행 표기를 통해 사설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부산고분도리걸립을 단순한 공연예술의 범주를 넘어서는 살아 있는 무형유산이자 공동체의 삶을 증언하는 시대적 사료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더 나아가 현시대를 넘어 후속세대로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교육적 활용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이 글을 토대로 부산고분도리걸립에 관한 심층적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역사적 형성과 전승

1) 아미농악의 탄생과 부산고분도리걸립

부산광역시 서구의 아미동 일대는 지금은 도심지가 되었지만, 광복 전만 해도 주민의 태반이 농민이어서 벽사진경(辟邪進慶)과 풍농을 기원하는 지신밟기가 성행하였고 이에 예능이 뛰어난 사람이 많았다고 전한다.⁶⁾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아미동은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죽은 자의 집 위에 산 자의 집’이라는 상징

적 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⁷⁾의 기원이 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두레곳으로 전승되어오던 이 지역의 지신밟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암흑기를 보낸다. 해방 이후 고분도리마을⁸⁾ 출신 유삼룡은 열너덧 사람을 모아 걸립농악 형태인 ‘곱은돌이 농악단’을 조직하여 지역 풍물의 재건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또다시 중단된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아미동으로 피란 와서 정착한 이명철, 정상열 등과 같은 풍물 예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미 걸립농악으로 기반을 잡고 있던 유삼룡과 함께 1952년 생계형 걸립패⁹⁾ 아미농악단을 창단하며 오늘날 부산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인 부산농악과 부산고분도리걸립의 모태가 된다.¹⁰⁾



그림 1. 『부산일보』 1959. 2. 10.
광복동 지신밟기 기사

1950년대 부산은 한국전쟁의 여파로 인해 피란민의 유입, 도시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특히 부산에서도 서구지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를 거치며 전통사회가 급속도로 와해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정초에 행하는 지

신밟기와 같은 민족 고유의 전통과 풍습은 지속적으로 계승되었고, 이 시기 많은 걸립패가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들의 지신밟기 행사는 다수

- 6)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제1권』, 부산직할시, 1995, 254쪽.
- 7)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로 49에 위치한다.
- 8)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마을의 옛 지명이다.
- 9) 걸립곳으로 전문성을 가진 농악대를 지칭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예술사전 농악』, (주)디자인인트로, 2016, 365쪽.
- 10)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95쪽;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3책 (농악·풍어·민요편)』, 1982, 97쪽;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부산직할시, 1991, 276쪽.

의 신문기사¹¹⁾에 언급될 만큼 도시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현재는 전승이 단절되어 그 내력을 알 수 없으나, 당시에는 아미농악단과 같이 결립을 주목적으로 활동한 전문 풍물패 집단이 다수 존재했으며, 각기 고유한 활동 영역을 설정하고 지역 내에서 정초 지신밟기 및 민속 공연을 수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단체 간의 풍물꾼 교류가 활발했다는 사실이다.¹²⁾ 각 농악단에 소속된 풍물패들은 특정 행사나 명절 또는 지역 공동체의 요청에 따라 협력하여 합동 공연을 펼치기도 했으며, 이는 부산지역 풍물 문화의 개방성과 공동체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부산 서구지역의 지신밟기 전통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변 속에서 소멸의 위기에 처했으나 피란으로 아미동에 집결한 전국 각지의 풍물꾼들에 의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고 아미농악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결립패로 재정립된다.

1960년대 말까지 아미농악단의 주요 활동은 정초 지신밟기이다. 음력 1월 초사흘에 아미동을 출발하여 포항 구룡포에 이르기까지 부산 일대를 경유하며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장기간의 여정을 이어갔다. 결립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며 추석을 맞아 잠시 부산으로 복귀한 뒤 다시 남해안을 따라 거제도, 남해, 하동 등지로 향하는 고된 여정이 이어졌다. 이 긴 여정은 동짓달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되었으며, 경유한 각 지역에서 개최된 농악경연대회에도 참여하였다.¹³⁾ 이러한 노

11) 『부산일보』 1956. 2. 18. 2면, ‘지신밟기 한창’; 『부산일보』 1957. 02. 19. 1면, ‘天地玄黃 지신밟기’; 『부산일보』 1959. 2. 10. 7면, ‘人工衛星 아래 땀도는 「지신밟기」’.

12) 당시 ‘대신동농악단’과 ‘범내골농악단’에서 아미농악 단원들도 활동하였다. 손태도, 「전통 공연예술인 면담 조사 자료」,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8집』, 2022, 258-259쪽; 황경숙, 「아미동의 대표적 연희 아미농악」, 『離鄉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 사람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189-187쪽.

13) 주경업, 『역사학 문화현장 체험 부산학, 길 위에서 만나다』, 부산민학회, 2011, 205쪽.

력의 결실로 창단 6년 만인 1958년 10월 ‘영남농악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1962년 ‘제1회 신라문화제’, 1970년 ‘11월 개천예술제’ 등 다수의 대회에서도 수상함으로써 그 기량을 널리 인정받았다.¹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미농악단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연희 집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아미농악단은 1978년 문공부 주관 ‘건국 30주년 기념행사’, ‘제9대 대통령 취임식 축하공연’, 1979년 ‘세네갈 대통령 방한 축하공연’ 등 국가 주요 행사의 주 공연단체로 선정되어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드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미농악은 부산농악으로 개칭하여 1980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¹⁵⁾ 본래 아미농악단은 지신밟기 의례를 근간으로 한 걸립굿이 주 활동이었다. 하지만 무형유산 지정과정에서 연희농악 구성 중심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옛 지신밟기 재현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한순, 정우수 등 부산농악 예인들의 헌신으로, 유삼룡의 활동지였던 옛 고분도리마을 지명에서 착안한 부산고분도리걸립이 2011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부산시 서구의 아미동과 대신동 일대를 근거지로 명부기실(名副其實) 민속예술의 중심에 있었던 아미농악단은 오늘날 지역 공동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의례를 기반으로 한 부산고분도리걸립과 부산과 전국의 뛰어난 풍물꾼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희농악 중심으로 발전한 부산농악으로 각각 분화되어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991년 개관한 지역 전통문화의 전당인 구덕민속예술관¹⁶⁾을 중심으로 아미농악단 창단 이후 약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 민속예술 단체로서 지역 무형유산

14) 부산광역시, 『2013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2013, 24쪽.

15) 부산광역시, 위의 책, 25쪽.

16)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4-91에 위치한다.

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전승 과정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대티고개 일대의 옛 고분도리마을은 지형적으로 곡선 형태로 돌아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곱아서 돌아가는 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¹⁷⁾ 부산고분도리걸립은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삼룡의 ‘곱은돌이 농악단’이 정초에 행했던 지신밟기 연행을 그 기원으로 삼는다.¹⁸⁾



그림 2. 시약산 산제당 전경 © 김선영

일반적으로 정초 지신밟기를 행하는 걸립패는 마을 초입의 당산에서 지신밟기의 시작을 알리는 당산제를 지내고 마을로 진입했다고 전한다. 이 지역의 대표 당산인 시약산 산제당¹⁹⁾이 1860년에 건립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 지신밟기 전통의 시작은 160여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지역 고로들의 견해이다.²⁰⁾

유삼룡이 상쇠로 활동한 초기 아미농악단의 걸립곳은 초대 단장인 이명철의 집 뒤편 놀이터에서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농기굿을 시작으로

17) 지역 거주민들의 구술증언과 지명 사용 관행을 고려할 때 ‘고불거리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형의 굴곡이나 이동 경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제1권』, 부산인쇄협동조합, 2006, 61쪽.

18)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276쪽.

19)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3동에 위치한 마을 제당으로 동학교주 최제우의 여동생이 지었다고 전하며 1978년과 2013년에 중수 및 재건축되었다.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뿌리찾기 4 부산의 당제』, 부산인쇄협동조합, 2005, 57-58쪽.

20)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부산고분도리걸립』, 2010, 6쪽.

당산으로 이동하여 제를 올리고 당산굿을 한다. 당산굿이 끝나면 마을 공동 우물에서 우물굿을 치른 뒤, 각 가정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가택 내 지신밟기를 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가정집과 상업 중심지로 분화되었다.

이 시기의 아미농악단은 생계형 걸립패로서, 복채의 풍부함과 걸립 대상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정월 초사흘 아미동 각 가정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초장동·대신동 등 부산 서구 일대를 순회하였다. 이어 광복동 국제시장·부산진시장 등과 같은 상업 중심지를 거쳐 해운대·송정·기장 등 동해안 지역으로 북상하는 걸립 여정을 이어갔다. 이 여정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정이었으며, 이때 걸립패 구성원들은 마을간 이동 중 선후배 간 기량을 상호 보완하며 예능을 축적하였다. 또한 단원들의 향상된 기량을 점검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각 지역에서 개최된 농악경연대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²¹⁾

이러한 걸립 행위는 단순한 연회를 넘어 장기(長技)와 신명(神明)을 앞세우고 예능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전략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걸립패가 직면한 경제적 현실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동 양상은 유랑 예인 집단의 생존 전략이자,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민속예술의 실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적 걸립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도시화된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확장함으로써 현대적 적응을 시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973년 단장 이명철이 작고한 뒤, 김한순이 단장직을 맡으며 그가 운영하던 대성사²²⁾가 아미농악단의 새로운 활동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²³⁾ 김한순은 부산고분도리걸립이 한 시대를 넘어 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서부산지역 민속예술의 발굴에 뜻이 깊었다. 그는 복원을 위해 1998년 2월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시

21) 황경숙, 앞의 책, 188-189쪽.

22) 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 141-14에 있다.

23) 주경업, 앞의 책, 209쪽.

장의 용왕제에서 지신밟기를 재연함으로써 그 복원의 단초를 마련하였다.²⁴⁾ 그 이후로 정우수를 비롯한 부산농악 단원들과 함께 정초 지신밟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였고, 점차 그 연행의 틀이 갖추어지자 유삼룡이 활동했던 고분도리마을 옛 지명에 착안하여 해당 연행을 ‘부산 서구 고분도리걸립’이라 명명하였다.



그림 3. 좌: 2005년 ‘부산 서구 고분도리 걸립 무대공연’ 상쇠-김한순
우: 2006년 ‘부산 서구 고분도리 걸립 풍물굿’ 상쇠-정우수²⁵⁾

이에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인 ‘부산 서구 고분도리걸립’의 발굴 및 재구성이 시작되어, 같은 해 5월 7일 ‘구덕골 전통민속예술축제’에서 최초로 시연되었다. 이를 계기로 5월 21일 ‘서구 고분도리걸립’으로 참가한 ‘제34회 부산민속예술축제’에서 김한순이 개인 연기상(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하며, 서구지역 걸립굿의 예술성과 전통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부산고분도리걸립이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던 시점에 김한순은 이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2006년 1월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²⁶⁾ 그의 뒤를 이어 정우수가 상쇠를 맡았고, 2006년 5월 20일 ‘제35회 부산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 수상, 같은 해 10월 전라북도 정읍시에

24)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앞의 책, 2010, 14쪽.

25) 팸플릿 출처: (사)구덕민속예술관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일: 2025.9.25.)

26) (재)부산문화재단, 『부산민속예술을 사랑한 영원한 농악 상쇠 효담 김한순』, (재)부산문화재단, 2024, 58-59쪽.

서 개최된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부산광역시 대표로 참가하여 은상(전북도지사상)을 수상함으로써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예술적 완성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어 2011년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이후로 전승과 보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2017년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²⁷⁾ 동상(국립국악원장상), 2023년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²⁸⁾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²⁹⁾ 더불어 시민들의 전통 민속예술 향유를 위한 지역 공헌 사업으로 ‘구덕골 전통민속예술축제’,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등 시민 참여형 축제 개최 및 ‘우리마을 문화재 알기’³⁰⁾와 같은 지역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지역 민속예술의 정체성 정립과 예술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아미농악단의 결립곳은 가정과 상권 중심의 결립으로 이분화되어 있었으나, 오늘날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정초 결립곳은 공동 주택으로의 현대식 주거 형태 변화로 인해 가정 내 지신밟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음력 1월 초사흘 부산 서구의 충무동 새벽시장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중구와 영도구의 전통시장을 넘나들며, 정월대보름 송도해수욕장 달집태우기 행사의 초청공연으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한 정초 결립곳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유삼룡의 ‘곱은돌이 농악단’ 지신밟기 전통이 아미농악단에서 부산고분도리결립으로 이어져 단순한 민속 의례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 상업 공간을 연결하는 여정으로 오늘날까지도 기능하고 있

27) 2017년 9월 21-24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수통원에서 개최.

28) 2023년 9월 22-24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

29)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2023; (사)구덕민속예술보존회, 「2025 구덕골 전통민속예술축제」, 2025.

30) (사)구덕민속예술관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bgdms&from=postList&categoryNo=19&parentCategoryNo=19> (검색일: 2025.9.1.)

음을 보여준다.

3) 부산고분도리걸립 ‘상쇠 및 풀이’ 전승 계보

지신밟기, 즉 걸립굿의 연희 과정에서 상쇠는 의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걸립패의 음악적 지휘자이자 상징적 리더로서 연희의 시작과 전환, 마무리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를 담당한다. 상쇠는 걸립패의 선두에서 팽과리를 연주하며 그 소리를 통해 걸립패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청중과의 감각적 교감을 유도하며 의례의 음악적 흐름을 통제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염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매개자로 다음 세대로의 전승에 있어 중심적 역할 또한 수행한다.

특히 부산고분도리걸립에서는 아미농악을 근간으로 한 상쇠의 전승 계보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곶은돌이 농악단’의 유삼룡을 시작으로 이명철, 김한순, 정우수, 그리고 이주현으로 이어지는 전승 계보는 지역 전통 민속예술의 정체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화적 자산으로 기능한다. 이는 단순한 기능 계승을 넘어 공동체의 의례적 기억과 전통 민속예술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상징적 체계로 기능하며, 지역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다음은 ‘곶은돌이 농악단’에서 아미농악단을 거쳐 부산고분도리걸립까지 상쇠를 담당한 전승자들의 계보이다.

(1) 유삼룡(柳三龍, 1898~1970)

부산 서대신동 고분도리마을 출신의 유삼룡은 ‘곶은돌이 농악단’의 마지막 상쇠이자 걸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주풀이 전문가로 아미농악단에 영입되었다.³¹⁾ 그는 한국전쟁 이후 전국 각지에서 피란 온 풍물꾼들이 모여 결성한 아미농악단이 이 지역의 걸립패로 정착하는 데 있

31) 최자운, 「부산·경남지역 지신밟기 공연의 추이와 의의」, 『한국민요학 40』, 2014, 230쪽.

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유삼룡의 지신밟기 소리는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 가락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쇠가락과 타고난 목청으로 위어내는 성주풀이로 정평이 나 있었고, 이는 그를 지신밟기 소리 명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주요 요인이었다.³²⁾

대처승 출신으로 알려진 유삼룡이 구송(口誦)과 가창(歌唱)한 성주풀이 사설은 성주신의 일대기를 담은 대서사적 무가로서, 『경문총람』의 ‘불설명당성주경’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³³⁾ 당시 부산지역은 강한 불교적 영향으로 불교의례에서 법사나 스님이 염불 형식으로 설행(設行) 하는 것처럼 성주경(成主經), 당산경(堂山經), 지신경(地神經) 등과 같은 경문을 구송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삼룡의 대처승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안택곳에 능하였고, 그는 걸립굿의 대가(代價)로 받는 전곡 추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신풀이 전문 연희자이자, 지역 공동체와의 연행적 관계를 매개하는 실천자로서 아미농악단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유삼룡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력은 현재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구술 중심의 민속예술 전승 구조와 기록의 단편성에서 비롯된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의 ‘곶은돌이 농악단’과 아미농악단에서의 활동은 부산고분도리걸립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고, 그가 지역 민속예술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걸립패의 조직화와 지신밟기 의례의 전문화를 이끈 중요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2) 이명철(李明哲, 1905~1973)

유삼룡과 함께 아미농악단의 단장과 상쇠로 활동한 이명철은 전라북

32) 주경업, 앞의 책, 208쪽.

33) 황경숙, 「초기 아미농악단의 형성과정과 연희기반-구술증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28, 2012, 206-207쪽.

34) 김도환, 「부산지역 무속의례 양상과 연행과정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45쪽.

도 무주 출신으로 청년기에 청안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3남 2녀를 두었는데 그 중 셋째 아들인 이용식(李容植, 1945~2002)은 장구 명인이자 부산농악의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이명철은 1951년 1·4후퇴 시기에 가족을 이끌고 부산으로 피란하였고, 이때 정착한 곳이 현재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로 알려진 지역이다. 이곳을 기점으로 철물점을 운영하며 생활이 안정되자 그의 연회적 기질과 열정이 다시금 발현되기 시작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 지신밟기 소리의 명인으로 명성을 떨치던 유삼룡과의 조우는 단순한 예술적 교류를 넘어 농악단 결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만남은 아미농악단 창단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단초가 되어 1952년 11월 20일, 아미동 2가 산 19번지 이명철의 자택 때문에 아미농악단 간판을 내걸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³⁵⁾ 바로 부산고분도리결립의 근간이 되는 아미농악단 탄생의 순간으로 부산지역 전통민속예술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이명철은 아미농악단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농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이에 해마다 이어지는 장기간의 결립 활동을 통해 본인의 연회 기량을 지속적으로 연마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4. 이명철의 개인상 수상 기사

좌: 『조선일보』 1967. 10. 3.

우: 『경향신문』 1968. 10. 21.

1967년 문화공보부가 주최한 ‘제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개인상 수상, 이듬해 대전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도 개인상을 수상하며 그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았다.³⁶⁾ 1970

35) 주경업, 앞의 책, 204쪽.

36) 『조선일보』 1967. 10. 3. 7면, ‘大統領賞에 濟州海女놀이’; 『경향신문』 1968. 10. 21. 7면, ‘대통령상엔 慶北의 車戰놀이’. 이명철의 개인상 수상 경력은 기존의 문헌에서 누락되어 있어 보완한다.

년 8월에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속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으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³⁷⁾을 서훈받는 영예를 안았다.³⁸⁾

이명철은 타고난 기량과 연희기술을 바탕으로 아미농악단 창단과 예술적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였으며, 일평생 지역사회에서 농악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헌신하였다. 이러한 그의 예술적 정신은 1973년 작고 이후 김한순으로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3) 김한순(金漢淳, 1936~2006)

김한순은 아미농악의 계승을 넘어 서부산 지역의 주요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그는 1936년 10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에서 부친 김금산(후에 김중화로 개명)과 모친 함꽃분 사이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강릉시 연곡면 신왕리로 이주하여 12세에서 17세까지 ‘신왕리 농악단’에서 활동하던 형들과 함께 ‘삼형제 풍물패’를 결성한다. 당시 큰형은 쇠, 둘째 형은 북을 담당하였고 김한순은 소고잡이로 경험을 쌓았다. 1955년 3월, 19세에 전라북도 남원 실상사에서 출가하였으나 다시 방랑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56년 11월경 부산시 서구 아미동에 정착, 아미농악단에 입단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한순은 1963년 대성사를 창건하고 이듬해인 1964년에 현 (사)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의 김귀엽 이사장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다. 그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미농악단 활동에만 전념하여 1971년부터 단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그가 운영하던 대성사가 아미농악단의 활동 근거지가 되었다.

그가 이끌던 1970년대 초반의 아미농악단은 탁월한 기량과 조직력을

37) 이명철의 국민훈장 석류장 서훈은 일부 문헌에 1972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아일보』 1970, 8, 8. 1면, ‘광복절 포상 발표’ 기사를 통해 1970년 수상을 확인하여 수정한다.

38) 주경업, 위의 책, 208쪽.

바탕으로 압도적인 명성을 누렸다. 그 예술적 수준과 공연 완성도는 동시대 어떠한 농악단과 비교하여도 단연 돋보였으며, 국가적 행사와 각종 민속경연대회에서의 연이은 수상은 아미농악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취 속에서 김한순의 개인적 기량 또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는 1972년 ‘제11회 신라문화제 전국농악경연대회’와 1974년 조선일보 주최 ‘전국농악경연대회’, 1976년 ‘제15회 신라문화제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각각 개인상을 수상하며 아미농악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한다.³⁹⁾

이러한 김한순의 주도 아래 아미농악단은 1979년 11월에 (사)부산농악보존협회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이듬해인 1980년 부산농악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았다.⁴⁰⁾ 또한 아미농악단의 지신밟기 의례를 복원하고자 했던 그의 간절했던 유지는 2006년 그가 작고한 이후 부산농악 단원들에게 계승되었다. 그 결과 정우수, 이주현 등 많은 부산농악 단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부산고분도리결립은 2011년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아미농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민속예술의 지속적 계승과 확장의 성과로 김한순의 지역 무형유산 계승에 대한 의지가 오늘날까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정우수(鄭又洙, 1950~)

현재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상쇠 및 풀이’ 보유자로 민속예술의 현대적 전승과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정우수는 1948년 3월⁴¹⁾, 경상북도 선산군 무을면 백자리에서 정상열(1888~1978)의 7남 1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나이 네 살 때 태극도를 신봉하던 큰아버지의 권유로 부산 감천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선산의 몰골농악대에서 활동하였던 부친 정상열은 부산으로 이주한 후, 앞서 언급한

39) 주경업, 위의 책, 209쪽.

40) (재) 부산문화재단, 앞의 책, 28-42쪽.

41) 호적에는 1950년 4월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삼룡, 이명철 등과 함께 1952년 아미농악단을 발족하고 그에 합류하였다.⁴²⁾ 당시의 결립패 활동은 고단한 피란 생활의 정서적 치유의 기능을 수행한 동시에 풍물꾼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정우수는 조금은 이른 여덟 살이 되던 해인 1957년에 동생 정우복과 함께 아미농악단에 입단하며 본격적인 민속 예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아미농악단에서는 부자(父子)가 함께 활동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농악단 구성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현실적 문제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시기 정우수는 유삼룡의 성주풀이를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전승을 받을 수 있었다.⁴³⁾ 또한 정운화(1922~1986)⁴⁴⁾에게 북을, 조성현(1922~1986)⁴⁵⁾에게는 장구·소고·상모를 사사(師事)하여 풍물의 기량을 연마하였다. 선천적으로도 뛰어난 자질을 지닌 그는 1962년 아미농악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제1회 신라문화제’에서 단체상과 더불어 소고잡이로 개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후로도 1963년과 1969년에 개최된 전국민속농악경연대회에서 각각 소고와 장구로 개인상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나아가 1977년 ‘제16회 신라문화제’ 개인상, 이듬해인 1978년 서울신문 대구지사 주최로 열린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상쇠로 개인상을 수상하는 등 그의 기량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⁴⁶⁾ 그 결과 정우수는 1989년 부산농악의 ‘대북-보유자’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장구-보유자’로 추가 지정되었다.⁴⁷⁾

현재 그는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고분도리결립보존회장으로 부산지역 전통 민속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42) 부산광역시,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사의 역사』, (주)도서출판 예린원, 2023, 230-231쪽.

43) 부산광역시, 위의 책, 235쪽.

44) 경북 경주 출신으로 북의 명인이었다.

45) 경남 진주 출신으로 장구와 들벅구, 상모에 뛰어났다고 한다.

46) 부산광역시, 위의 책, 239-241쪽.

47) 「農巖 정우수의 一生」 공연 팸플릿, 2025.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제67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5) 이주헌(李周憲, 1970~)

이주헌은 1970년 8월 부친 이상연과 모친 차순희의 3남 1녀 중 막내로 옛 태극도 마을⁴⁸⁾이자 현재 감천문화마을로 알려진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2동에서 태어났다. 1984년 정초, 초장동에 있는 부산농악단 연습실을 우연히 방문한 자리에서 첫 스승 김한순과의 만남을 계기로 부산농악에 입문한다. 그가 처음 접한 악기는 소고였으며, 감천동 소재 태극도 건물 내 연습실을 근거지로 중·고등학교 선후배 약 20여 명과 함께 풍물 연습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전통연희에 대한 깊은 열정을 바탕으로 기량을 점차 발전시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1989년, 부산농악의 장구 명인으로 이름난 이용식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1992년 군 복무를 마친 후 서울에 머물며 잠시 활동의 공백기를 겪었으나,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이용식이 단장으로 활동하던 부산풍물패에 합류한다. 1994년 6월 부산농악 전수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1999년 6월 장구 이수자로 인정받기까지 이용식의 가르침은 이주헌의 예술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로소 전통 민속 예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주헌은 부산농악 단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 김한순의 뜻에 따라 옛 아미농악단의 지신밟기 고증 및 복원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6년부터 부산고분도리걸립의 부쇠 직을 맡아 ‘작은소리-지신 풀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마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1년 부산고분도리걸립이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당시 그는 전수조교로 선발되었다. 이어 2012년 5월 ‘제41회 부산민속예술축제’에서 개인 연기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 ‘상쇠 및 풀이’ 부문 전승교육사

48)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과 태극도 신도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보유자 후보)로 공식 인정받았다.⁴⁹⁾

이주헌은 부산고분도리걸립의 복원 초기부터 20여 년에 걸쳐 정우수를 보좌하여 다양한 전승 활동 현장에서 상쇠와 부쇠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1997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하여 현재까지 그 활동을 병행하여 전통연희와 창작국악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도모하며 부산지역 국악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이론적 연구에도 매진하여 2017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음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⁵⁰⁾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그가 부산고분도리걸립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계승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통 민속예인의 길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음 세대로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전승이라는 중대한 과업 실천을 위해 오늘날 다수의 예인들이 항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표 1> 부산고분도리걸립 상쇠 및 풀이 전승자 현황 (2026년 6월 기준)

구분	성명
보유자	정우수 (1950년생)
전승교육사 (보유자 후보)	이주헌 (1970년생)
전승교육사 (전수교육조교)	성낙길 (1969년생)
이수자	전진삼 (1975년생) 박정원 (1984년생), 백민권 (1980년생)
일반 전수생	박란숙 (1966년생), 유금숙 (1968년생)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상쇠 및 풀이’ 전승 체계는 <표 1>에 제시된 바

49) 「2026 구덕골 전통민속예술축제」 공연 팸플릿 참고.

50) 이주헌, 「부산 고분도리 걸립의 풀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와 같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보유자 정우수가 자리하고 있다. 전승교육사(보유자 후보)인 이주현과 전승교육사(전수교육조교) 성낙길을 비롯하여 이수자 전진삼, 박정원, 백민권과 일반 전수생 박란숙, 유금숙 또한 부산고분도리걸립의 핵심인 지신밟기 사설의 보존과 전승에 함께 헌신하고 있다. 이들 모두 부산지역 전통 민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사설 구성과 제의적 특성

부산고분도리걸립은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는 민속의례로서, 그 연행 구조는 공간적 이동과 의례적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걸립의 시작을 알리는 첫째 마당 당산굿은 마을 초입의 당산에서 이루어지며, 마을의 수호신 격인 당산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공동체의 재앙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의례의 출발점이 된다. 당산굿이 끝난 후, 걸립패는 마을 공동 우물로 이동하여 동네 우물굿을 진행한다. 이는 우물이 생명의 근원으로 마을의 식수와 생존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반영하며, 청정수의 지속적 공급과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둘째 마당에서 걸립패는 각 가정으로 이동하여 성주굿과 조왕·장독·곳간·정낭·마구간에 대한 가정풀이⁵¹⁾를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각 공간은 가정의 생계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장소로 그 공간을 수호하는 지신에게 액막이와 복덕을 기원하는 사설이 아니리와 창으로 전개된다.

셋째 마당에서는 걸립에 참여한 모든 이가 바닷가 혹은 바다가 조망

51) 각 가정의 주요 공간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풀이를 지칭한다.

되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용왕굿을 지낸다. 용왕굿은 바다의 신 용왕에게 마을 어민들의 무사 출항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례로 결립의 마무리 단계이자 부산의 지역적 특색인 해양 공동체의 생업과 직결된 신앙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부산고분도리결립은 마을의 지리적 구조와 생활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각 장소를 지키는 지신에게 제의를 올리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고분도리결립은 총 네 마당으로 구성되며 각 마당은 의례적 성격과 연희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연희가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쇠와 부쇠의 지신풀이로 진행되는 첫째·둘째·셋째 마당과는 달리 넷째 마당인 판굿은 악사들의 개인 기량을 선보이는 대동놀이 성격의 춤판으로 제의보다는 연희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관계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인 첫째 마당 당산굿과 동네 우물굿, 생활공간의 복락을 기원하는 둘째 마당 성주굿과 가정풀이, 해양 도시 부산의 지역성을 잘 담지하고 있는 셋째 마당 용왕굿 사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당산굿과 동네 우물굿: 마을공동체의 안녕

(1) 당산굿

예로부터 주민들은 수호신으로서 마을의 수목(樹木)과 암석(巖石)을 신체(神體)로 삼고, 산신(山神)과 더불어 이를 숭배하며 당산 신앙을 형성하였다. 당산(堂山)은 마을을 지키는 당산신(堂山神)이 좌정한 장소로 재앙을 막고 복을 부르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⁵²⁾

부산고분도리결립은 “상쇠- 여보소! 화주⁵³⁾ 양반 오늘은 어데로⁵⁴⁾ 갑니까? 화주- 예. 오늘은 00마을로 가서 당산굿과 동네 우물굿을 합니

5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5, 21쪽.

53) 결립굿할 장소의 섭외와 답례로 받는 전곡의 수납을 담당하는 잡색이다.

54) ‘어디로’의 부산 지역말.

다.”라는 상쇠와 화주의 문답으로 걸립굿의 시작을 알린다. 걸립패는 화주와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당산으로 향하며, 당산에 도착한 후 삼배(三拜)한다. 이때 부쇠는 대법천왕, 제석천왕, 삼십삼천 당산신 등 지신을 불러 그들의 권능으로 삼재팔난을 막아내고 만복수복을 내려줄 것을 당산곳으로 청한다. 아래는 부산고분도리걸립의 당산굿 사설이다.

(아니리)⁵⁵⁾ 여봐라 복쇠야⁵⁶⁾!
우리가 맨날 풍악만 올릴 게 아니고
이곳 당산에다가 당산제를 한번 잘 지내보는 것이었다.

(창)⁵⁷⁾ 여루⁵⁸⁾~ 지신아 당산지신을 눌러보세.
이 당산을 모실라고 천태산⁵⁹⁾에다 청솔⁶⁰⁾베고
오악명산⁶¹⁾에 황토 파서 당산 앞에다 금토⁶²⁾놓고
갑자을축⁶³⁾ 육십 날에 생기복덕⁶⁴⁾ 날을 받아
천장만장⁶⁵⁾ 장을 보아 만반지수⁶⁶⁾로 채려 놓고
산호판⁶⁷⁾ 좋은 판에 앵모잔⁶⁸⁾에다 술을 부어

-
- 55) 창자가 노래는 하지 않고 말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장단 없이 자유로운 리듬으로 진행되며 극의 흐름을 설명하거나 다음 장면을 연결하는 역할이다.
- 56) 걸립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치배(악사)를 이른다.
- 57) [매] 소리꾼이 장단에 맞춰 부르는 노래 부분을 의미한다.
- 58) ‘여러’의 변음(變音)으로 보인다.
- 59) 불교적 세계관에서 인간 세계와 초월적 영역을 연결하는 상징적 산으로 자주 언급되는 천태산(天台山)의 변음(變音)으로 보인다.
- 60) [靑松] 푸른 소나무.
- 61) [五嶽名山] 동서남북과 중앙을 대표하는 다섯 개의 성산(聖山).
- 62) [禁土] 부정을 막는 흙.
- 63) [甲子乙丑] 육십갑자의 첫째와 둘째로 육십갑자를 달리 이르는 말.
- 64) [生氣福德] 생기법으로 본 길일과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의 간지를 팔괘로 나누어 가린 길한 일진의 날.
- 65) 여러 장을 일컫는 말로 아주 많다는 뜻.
- 66) [滿盤珍羞] 상 위에 가득 차린 귀하고 맛있는 음식.
- 67) 산호로 만든 판.
- 68) 앵무조개로 만든 귀한 잔.

차례차례 채려 놓고 당산제를 모셔보자.
 대법천왕⁶⁹⁾ 당산님네 제석천왕⁷⁰⁾ 당산님네
 삼십삼천⁷¹⁾ 당산님네 이십팔수⁷²⁾ 당산님네
 오악지신⁷³⁾ 당산님네 후토지신⁷⁴⁾ 당산님네
 동방청제⁷⁵⁾ 당산님네 남방적제⁷⁶⁾ 당산님네
 서방백제⁷⁷⁾ 당산님네 북방흑제⁷⁸⁾ 당산님네
 중앙황제⁷⁹⁾ 당산님네 사해지신⁸⁰⁾ 당산님네
 오늘같이 좋은 날에 당산제만을 모신 후에
 삼재팔란⁸¹⁾ 막아내고 만복수복⁸²⁾만 비나니요.
 놀러주소⁸³⁾~ 놀러주소~ 천년만년을 놀러주소.
 잡귀야 잡신은 물⁸⁴⁾ 알로⁸⁵⁾ 가고 만복수복만 이리 오소.

부산고분도리걸림의 당산굿은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
- 69) [大法天王] 대법천(大梵天)에서 사바세계를 다스리는 대법천왕(大梵天王)의 변음(變音)으로 보인다.
 70) [帝釋天王] 도리천의 임금으로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하는 왕.
 71) [三十三天] 욕육천, 십팔천, 무색계 사천과 일월 성숙천, 상고천, 지만천, 견수천, 제석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
 72) [二十八宿] 천구를 황도에 따라 28구역으로 나누어 놓은 별자리를 이르던 말.
 73) [五嶽地神] 우리나라의 이름난 다섯 산을 다스리고 신.
 74) [后土地神] 땅을 지키는 신.
 75) [東方青帝] 오방신장의 하나로 오행설에 봄을 담당하는 동쪽의 신.
 76) [南方赤帝] 오방신장의 하나로 오행설에 여름을 담당하는 남쪽의 신.
 77) [西方白帝] 오방신장의 하나로 오행설에 가을을 담당하는 서쪽의 신.
 78) [北方黑帝] 오방신장의 하나로 오행설에 겨울을 담당하는 북쪽의 신.
 79) [中央皇帝] 오방신장의 중앙을 담당하는 만물의 주재자.
 80) [四海地神] 사방의 바다를 지키는 신.
 81) [三災八難] 화재, 수재, 풍재와 같은 온갖 재난을 이르는 말.
 82) [萬福壽福] 장수와 아주 많은 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
 83) 나쁜 기운을 놀려준다는 표현.
 84) 땅을 뜻하는 ‘물’의 변음(變音)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물’은 통속적으로 섬에서 육지를 이르는 말로 여기서 ‘물’은 모든 ‘액운을 물 아래로 흘려보낸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85) ‘아래로’의 부산 지역말.

의례적 언어로서 지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술적 행위로 기능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산지신을 불러들이는 청신(請神)으로 시작하여 마을 구성원의 소망과 기원을 전달하는 축원(祝願)과 액막이 구조로 이어진다. 특히 ‘대법천왕 당산님네 …(중략)… 당산님네’와 같은 글자수의 규칙성과 운율의 반복은 지신밟기나 굿에서 구송되는 무가(巫歌)의 운율적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상징적 표현을 통해 청중의 몰입을 유도한다. 또한 자진모리장단의 사설 반주는 의례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고조시켜 사설의 감각적 전달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원전(原典)⁸⁶⁾에는 아니리 없이 곧바로 창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연희에서는 아니리를 통해 청중의 주의를 환기한 뒤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지신밟기의 전체 사설 구송을 상쇠가 주도하는 것과 달리, 부산고분도리결립의 당산 굿에서는 상쇠가 아닌 부쇠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후속 장에서 다시 다루겠다.

(2) 동네 우물굿

부산고분도리결립에서 행하는 우물굿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고 이용하는 공동 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로부터 우물은 공동체의 생존과 유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간 삶에 필수적인 식수원을 제공하는 장소로 기능해 왔다. 따라서 우물굿은 단순한 식수의 확보를 넘어 공동체적 결속과 신성한 질서를 재확인하는 의례적 행위이며, 다음은 부산고분도리결립의 동네 우물굿 사설이다.

(창) 여루~ 지신아 새미⁸⁷⁾야 지신을 눌러보세.
비나니요~ 비나니요~ 우물님전에 비나니요.

86) 이 글에서는 2010년에 작성된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고분도리결립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를 원전으로 한다.

87) ‘샘’의 부산 지역말.

이 샘에 청정수⁸⁸⁾ 마시거들랑 수명장수⁸⁹⁾를 접지하소.
 비나니요~ 비나니요~ 새미 넘전에 비나니요.
 칠년대한⁹⁰⁾ 가뭄에도 풍덩풍덩 솟아나소.
 놀러주소~ 놀러주소~ 천년만년을 놀러주소.
 잡귀야 잡신은 물 알로 가고 만복수복만 이리 오소.

부산고분도리걸립의 동네 우물곳은 공동체적 상징성을 의례적으로 재현하는 행위로 샘의 지신, 즉 물을 신격화한 용신(龍神)에게 칠년대한에도 마르지 않는 청정수의 지속적 분출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이 의례는 샘의 지신을 불러들이는 청신으로 시작하여 청정수와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축원, 그리고 잡귀·잡신을 누르고 복을 청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비나니요~ 비나니요’, ‘놀러주소~ 놀러주소’와 같은 반복적 운율 구조는 주술적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자진모리장단 반주와 부쇠의 사설 주도 형식은 당산굿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며, 이러한 음악적 구성은 청중의 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부산고분도리걸립의 동네 우물곳은 공동체의 염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매개로 작용하면서 그 상징성과 신성성을 강화하는 의례적 의미를 지닌다.

2) 성주굿과 가정풀이: 생활공간의 복락

부산고분도리걸립의 둘째 마당은 지신뱃기를 원하는 각 가정의 대문 앞에서 걸립패가 “주인 주인 문 여소! 만복이 드가요⁹¹⁾.”를 외치며 시작된다. 이때의 합동소리는 의례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공동체적 흥을 불러일으킨다. 이 구호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복의 진입을 상징하는 언어적 장치로서, 각 가정의 대문이 신성한 통로로 기능한다.

88) [淸淨水] 맑고 깨끗한 물.

89) [壽命長壽] 수명이 길어 오래도록 삶.

90) [七年大旱] 중국 은나라 탕왕 때 칠 년 동안의 가뭄을 말한다.

91) ‘들어가요’의 부산 지역말.

의례는 기능적 측면에서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성주신의 좌정을 기원하는 성주굿이며, 둘째는 가택 내 주요 공간인 조왕·장독·곳간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풀이이다. 성주굿이 가정의 평안과 재물의 증진,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기원하는 중심 의례로 가택 신앙의 핵심을 이룬다면, 가정풀이는 각 공간의 상징성과 기능에 따라 신성화된 행위를 통해 일상의 질서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성주굿은 부산고분도리결립의 모든 지신밟기 중 가장 핵심적인 의례로 상쇠의 주도 아래 굿거리·자진모리장단에 맞춰 아니리와 창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연행된다. 이러한 연행 방식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서 의례적 긴장감과 서사적 흐름을 조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표 2>는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성주굿에서 전개되는 성주신의 일대기와 집짓기 과정, 그리고 축원 및 살풀이에 이르는 서사구조를 3단계로 정리한 것이며,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성주굿 순서와 연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부산고분도리결립-성주굿 서사구조

단계	순서	내용 요약	연행 방식
1	성주풀이	성주신의 탄생부터 가택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	아니리⇒창(굿거리장단)
2	목재 고르기	무주남산에 솔씨를 흘리고 양재를 고르는 과정	아니리⇒창(자진모리장단)
	집터잡기	풍수지리적 명당인 시약산에 집터를 잡는 과정	아니리⇒창(자진모리장단)
	일꾼 모으기	일꾼을 모아 집터를 닦고 집을 짓는 준비를 하는 과정	아니리⇒창(자진모리장단)
	집짓기	용의 머리와 학의 등, 그리고 산 위에 집을 짓는 과정	아니리⇒창(자진모리장단)
	왕토치기	집에 왕토를 쳐서 복된 터로 만드는 과정	아니리⇒창(자진모리장단)

3	축원하기	자손과 가족의 번창과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는 과정	아니리⇒창(자진모리장단)
	살풀이	정월부터 선달까지 살(액)을 풀어주는 과정	아니리⇒창(자진모리장단)

(1) 성주굿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성주굿 사설에 나타나는 성주신의 일대기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 성주신은 하늘나라의 천궁대왕과 옥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령으로 설정되며, 이러한 신화적 기원은 그의 존재에 신성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성주신은 결혼 후 죄를 범하여 추방당하고 황토섬으로 귀양을 가 삼 년간 고난의 시간을 겪는다. 이 귀양 서사는 영웅 서사의 핵심 요소인 시련과 정화의 과정을 상징하며, 이후 성주신이 복권되어 집짓기 재능을 발휘하는 서사로 이어진다.

성주신은 무주남산에 솔씨를 흩어 청장목과 황장목을 기르고 이를 통해 양질의 목재를 선별하여 백성들에게 집을 지어준다. 이 과정은 단순한 건축 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복을 점지하는 신령의 역할 수행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풍수를 통해 집터를 잡고 일꾼을 모으며 용의 머리와 학의 등 위에 집을 짓는 일련의 과정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령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는 민속적 상상력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집짓기가 완료된 후에는 각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축원을 행하며, 정월 초하룻날부터 선달그믐날까지 온갖 살(煞)을 풀어주는 살풀이를 통해 액막이를 수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는 신화적 기원 ⇒ 인간적 추방 ⇒ 시련과 복귀 ⇒ 공동체에 대한 봉사 축원이라는 구조에 따라 전개되며, 이는 영웅 서사의 핵심 요소인 출생 ⇒ 시련 ⇒ 복귀 ⇒ 구원의 단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성주굿은 성주신의 탄생에서부터 가택신으로의 좌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담아 성주풀이를 시작으로 재앙과 액

운을 해소하는 살풀이까지 총 여덟 단계로 구성된다. 이 의례는 궁극적으로 가정의 평안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 재물의 증진을 기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단계는 상징적 서사와 의례적 행위를 통해 신과 인간, 그리고 가정풀이가 이루어지는 가택 내 주요 공간 간의 연결을 암시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성주굿 사설은 그 구성이 매우 정교하며, 예술적 완성도 또한 탁월한 수준에 이른다. 성주굿의 모든 과정은 상쇠가 전담하여 연행하며, 이는 무속 의례에서 상쇠의 역할이 단순한 연주자를 넘어 서사의 전달자이자 의례의 주도자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집짓는 과정 중 ‘왕토치기’이다. 이는 기존의 공식 문헌이나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대목이다. 다음은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왕토치기’ 사설이다.

(아니리) 여봐라 복쇠야!

우리는 집은 잘 지어놔는데 왕토를 칠라하면
산재를 읊어야 왕토를 치는 것이었다.

(창) 산재읍자~ 산재읍자~ 이내 일신을 산재읍자.

산재읍자~ 산재읍자~ 이내 일신을 산재읍자.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이 대목을 처음으로 목도한 것은 2023년 9월 9일,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에서 부산고분도리걸립보존회가 초청되어 연행한 무대였다. 이후 보유자 정우수의 구술 고증과 재연을 바탕으로 이 글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는 성주굿 사설의 구성에 있어 서사적 다양성과 민속적 정합성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원전에 따르면 아니리 없이 ‘집짓기 ⇒ 축원하기’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집짓기 ⇒ 왕토치기 ⇒ 축원하기’ 순으로 연행할 때는 ‘축원하기’에서 아

니리를 구송한 뒤 창으로 연결된다. 이 글에서는 ‘왕토치기’와 ‘축원하기’ 사실을 보완하였고 성주굿 전체 사실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2) 조왕굿

성주굿 다음으로 진행되는 가정풀이에서 가택 내 첫 번째 공간인 조왕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을 마련하는 곳으로 불을 관장하는 장소이다. 그 연원(淵源)은 알 수 없으나 전통적으로 불을 신성시하여 불씨를 꺼뜨리는 행위는 집안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씨가 담긴 화로를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으며, 이사 시에도 길일(吉日)과 길시(吉時)를 택하여 먼저 불을 붙인 후에 짐을 옮기는 등 불에 대한 각별한 존중과 의례적 실천이 이루어졌다.⁹²⁾ 조왕을 지키는 조왕신(寵王神)은 불을 관장하며 부엌을 지키는 가택신으로 가족의 건강과 무병장수,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다음은 부산고분도리결림의 조왕굿 사설이다.

(창) 여루~ 지신아! 조왕지신을 놀러보세.
이 조왕을 모실라고 좋은 날을 가리 받아
상탕에 목욕하고 중탕에다가 수족 씻고
소지 삼장 올린 후에 이 조왕을 비나이요
비나이요~ 비나이요~ 팔만사천에 조왕님네
큰술은 닷말치⁹³⁾요 작은 술은 서말치⁹⁴⁾라
국술을 열어보니 펄펄 끓는 국맛이요
밥술을 열어보니 고실고실 밥맛이라.
이 집에라 정절부인⁹⁵⁾ 동서사방⁹⁶⁾을 다 다녀도

92)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011, 605쪽.

93) ‘다섯 말치’라는 뜻으로 ‘말(斗)’은 곡식이나 액체의 부피를 재는 전통 단위로 1말은 약 18리터, 닷말치는 약 90리터에 해당하는 양을 의미한다.

94) ‘세 말치’를 뜻하며 약 54리터에 해당하는 양을 의미한다.

95) 절개가 곧은 부인을 지칭하는 정절부인[貞節夫人]의 변음(變音)으로 보인다.

96) [東西四方] 동쪽과 서쪽을 아울러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총칭하는 말.

간 곳마다 귀인⁹⁷⁾ 만나 열 일이 한 일 같고
 백사⁹⁸⁾가 만사⁹⁹⁾하게 소원성취를 비나니요
 비나니요~ 비나니요~ 팔만사천에 조왕님네
일 년하고도 열두 달 과년¹⁰⁰⁾하고도 열석 달에
 삼백 하고도 육십 일을 오늘 같이도 점지하소
 잡귀야 잡신은 몰알로 가고 만복수복만 이리 오소.

부산고분도리결립에서의 조왕굿은 생명과 재생, 정화의 상징인 불을 통해 집안의 재액을 막아주는 조왕지신을 불러 축원한다. 먼저 지신을 불러들이는 청신 절차를 시작으로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음식 축원과 더불어 잡귀·잡신을 물리치는 액막이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과정은 첫째 마당의 당산굿, 동네 우물굿과 동일한 구성으로 운율의 규칙성과 반복을 통해 청중의 집중과 몰입을 유도한다. 성주굿과 달리 독립된 아니리는 없으며, 부쇠의 주도 아래 자진모리장단 반주에 맞추어 창으로만 진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구조적·음악적 특성은 조왕굿이 성주굿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가정풀이의 첫 제차(祭次)가 지니는 상징성과 의례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3) 장독굿

한국의 전통 식문화에서 장(醬)은 정성을 담아 마련하는 음식의 근간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장을 저장하는 장독대에서 행하는 장독굿은 부산고분도리결립의 가택 내 가정풀이에서 두 번째 제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장독대는 가택 내에서도 햇볕이 잘 드는 정갈한 장소에 설치하여 장의 발효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청결과 정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장독대는 늘

97) [貴人]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

98) [百司] 백가지 일.

99) [萬事] 만가지 일. 모든 일.

100) [過年] 해를 넘기다.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했으며, 외부의 부정함을 막기 위해 금줄을 매달거나 정한수(淨寒水)를 떠 놓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장독대를 정성과 기원의 대상이 되는 성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¹⁰¹⁾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장독굿 사설은 다음과 같다.

(창) 여루~ 지신아 장독지신을 눌러보세.
비나니요~ 비나니요~ 장독지신께 비나니요.
이 장독을 바라보니 꼬치장¹⁰²⁾ 도가지¹⁰³⁾ 닷말치라.
간장독은 닷말치요 된장 막장은 서말치라.
꿀을 치자. 꿀을 치자. 장독에다가 꿀을 치자.
인간 수명 백년인데 장독 수명은 끝이 없네.
콩 태자 맛들면은 소금 염자 없을 쏘냐.¹⁰⁴⁾
눌러주소~ 눌러주소~ 천년만년을 눌러주소.
잡귀야 잡신은 물 알로 가고 만복수복만 이리 오소.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장독굿은 음식의 간을 담당하는 장의 안녕과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의례로 장을 수호하는 지신을 불러들이는 청신과 축원, 그리고 잡귀·잡신을 물리치는 액막이의 절차로 구성된다. 이러한 의례적 과정은 장이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하는 음식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며, 장독굿을 가정풀이의 두 번째 제차로 설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독굿은 부쇠가 주도하며, 자진모리장단 반주에 맞추어 별도의 아니리 없이 창으로만 연행한다. 따라서 장독굿은 의례적 상징성과 음악적 구조가 결합한 형태로 가정풀이의 맥락 속에서 장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제차라 할 수 있다.

101) 강용권, 『民俗紀行』,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4, 262쪽.

102) ‘고추장’의 부산 지역말.

103) ‘장독’을 이르는 말로 경상, 전라, 제주지역의 말.

104) ‘콩 태자가 맛들면 소금의 기운이 없을 리가 없다.’ 즉,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의미로 지역말과 민속적 정서가 결합한 말로 보인다.

(4) 곳간굿

부산고분도리결립의 가정풀이에서 세 번째 장소 곳간은 곡물과 재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가정의 물질적 기반을 상징한다. 곳간을 수호하는 신으로는 고방신(庫房神) 또는 도장신(道場神)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앙은 재물의 지속적 축적과 유지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다. 곳간지신을 위한 의례인 곳간굿은 주로 정월의 지신밟기나 가을고사 등의 절기 행사에서 연행되었고, 이는 가정의 번영을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로 해석된다.¹⁰⁵⁾ 다음은 부산고분도리결립의 곳간굿 사설이다.

(창) 여루~ 지신아 곳간지신¹⁰⁶⁾을 놀러보세.
비나니요~ 비나니요~ 곳간지신께 비나니요.
일 년 삼백육십오일 천석만석¹⁰⁷⁾을 불러주소..
놀러주소~ 놀러주소~ 천년만년을 놀러주소.
잡귀야 잡신은 물 알로 가고 만복수복만 이리 오소.

부산고분도리결립의 곳간굿은 곳간을 생계와 풍요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세계관을 반영한 민속 의례이다. 이 의례는 집안의 재물을 보관하는 핵심 공간인 곳간을 수호하는 지신을 불러들이는 청신과 재물 축원(財物祝願), 그리고 잡귀·잡신을 물리치는 액막이의 절차로 진행되며 창으로만 연행된다. 곳간굿은 부쇠가 주도하며 자진모리장단의 반주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가정풀이의 연속적 제차 속에서 곳간이 지닌 상징성과 의례적 의미를 부각시키며 공동체의 생활 기반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105)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011, 51쪽.

106) [庫間地神] 곡식 창고를 수호하는 가택신으로 집안의 재물과 식량의 풍요를 지켜주는 신.

107) [千石萬石] 아주 많은 곡식을 이르는 말.

(5) 정낭곳

부산고분도리결립에서 가정풀이 네 번째 장소인 정낭은 뒷간, 측간, 변소 등으로도 불리며 배설과 정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인간의 생리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이다. 전통적으로 이 공간은 잡귀가 쉽게 침입하는 음지로 인식되어 주술적 정화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낭에 깃든 잡귀를 몰아내고 공간을 정화하는 의례적 행위로서 정낭곳이 행해졌다.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정낭곳 사설은 다음과 같다.

(창) 여루~ 지신아 정낭지신¹⁰⁸)을 눌러보세.
 비나니요~ 비나니요~ 정낭지신께 비나니요.
 막아주소~ 막아주소~ 이질¹⁰⁹) 곱똥¹¹⁰)을 막아주소.
 눌러주소~ 눌러주소~ 천년만년을 눌러주소.
 잡귀야 잡신은 물 알로 가고 만복수복만 이리 오소.

부산고분도리결립에서의 정낭곳은 정낭을 대상으로 재액(災厄)을 막고 질병을 몰아내며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절차로 연행된다. 이 의례는 정낭지신을 불러들이는 청신과 질병으로부터의 건강을 기원하는 축원, 그리고 잡귀·잡신을 물리치는 액막이의 절차로 구성된다. 가정 내 음지 공간까지도 신성한 장소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예를 갖추는 전통적 세계관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선인들의 공간 인식과 민속적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아니리 없이 창으로만 연행되는 정낭곳은 부쇠가 주도하며 반주에는 자진모리장단이 사용된다.

(6) 마구간곳

부산고분도리결립의 가정풀이 마지막 장소인 마구간은 과거 농사에

108) 뒷간(화장실)을 수호하는 가택신으로 질병과 재앙을 막아주는 신.

109) [痢疾] 대변(大便)에 곱과 피가 나고, 뒤가 잦은 전염병.

110) 곱이 섞여 나오는 대변으로 ‘곱’은 회거나 피가 섞여 붉그레한 점액으로 고름 모양의 물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소를 사육하는 공간으로 가축을 가족처럼 여겨 살림채 안에 두고 관리하였다.¹¹¹⁾ 이러한 마구간이나 외양간에 좌정하여 가축이 번성하고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축신으로 우마신(牛馬神)이 있으며 마부신, 쇠구영신, 마대장군, 외양간신 등으로도 불린다.¹¹²⁾ 다음은 부산고분도리결립의 마구간굿 사설이다.

(창) 여루~ 지신아 마구간지신¹¹³⁾을 놀러보세.
 비나니요~ 비나니요~ 마구간지신께 비나니요.
 일 년 삼백육십오일 마구간에 가축들이
 소가 나면은 왁대¹¹⁴⁾가 나고 말이 나면은 용마 나고
 개가 나면 벽구가 나고 닭이 나거든 봉황이 난다.
 놀러주소~ 놀러주소~ 천년만년을 놀러주소.
 잡귀야 잡신은 물 알로 가고 만복수복만 이리 오소.

부산고분도리결립의 마구간굿은 마구간을 수호하는 지신을 불러들이는 청신과 가축의 건강과 번창을 기원하는 축원, 그리고 잡귀·잡신을 물리치는 액막이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성주굿의 축원하기 대목 중 “소가 나면은 왁대 나고 말이 나면은 용마 나고...(후략)” 사설의 일부가 동일하게 반복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가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태어날 때마다 그 집에 복이 깃든다는 상징적 언어로 기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고분도리결립의 둘째 마당 중 가정풀이는 조왕굿·장독굿·곶간굿·정낭굿·마구간굿 순서로 연행되며 각 제차는 가정 내 특정 공간과 그 공간을 수호하는 지신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111)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책, 158쪽.

112)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책, 530쪽.

113) 가택 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수호하는 가택신으로 집안의 말과 소 같은 가축의 건강과 번식을 지켜주는 신.

114) 힘센 황소를 이르는 말.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1289쪽.

제차는 기본적으로 청신-축원-액막이라는 의례적 구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즉, 먼저 자신을 불러들이는 청신을 통해 신성성을 부여하고, 이어서 가족의 건강·재물·풍요 등 생활과 직결된 바람을 담은 축원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잡귀와 잡신을 물리치는 액막이를 통해 의례를 완결한다. 이러한 구조는 가정 내 모든 공간을 신성화하고 일상적 삶의 요소를 의례적 차원으로 제고시키는 전통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각 제차는 대상 공간과 상징적 의미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조왕굿은 부엌과 불을 관장하는 조왕지신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과 음식의 근간을 강조하며, 장독굿은 장독대를 통해 장의 안녕을 기원함으로써 생명과 풍요의 근원을 상징한다. 곳간굿은 재물 보존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로 초복(招福)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며, 정낭굿은 음지 공간인 정낭을 신성시함으로써 가정 내 모든 공간을 예의 대상으로 삼는 전통적 공간 인식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마구간굿은 가족의 건강과 번창을 기원하며, 성주굿 축원하기 대목의 사설 일부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족 출산을 복의 상징으로 보여준다.

모든 가정풀이는 부쇠가 주도하며 자진모리장단을 사설 반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앞서 살펴본 성주굿만은 독립된 아니리를 포함하여 아니리와 창이 병행되는 구조를 보이며, 나머지 가정풀이는 창으로만 연행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보인다. 또한 운율의 규칙성과 반복을 통해 청중의 몰입을 유도하여 각 의례가 지니는 상징성을 한층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부산고분도리걸립의 가정풀이는 공통된 의례 구조와 음악적 형식 속에서 각 공간의 상징성과 민속적 지혜를 드러내는 차별성을 함께 보여주는 복합적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가택 내 모든 공간을 신성화하며 생활의 근간을 의례적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전통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삶과 문화적 가치가 집약된 무형유산으로서의 의의를 보여준다.

3) 용왕굿: 생업터전으로서의 바다와 액막이

부산고분도리결립에서 행해지는 용왕굿은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을 달래어 마을의 연중 안녕과 주민들에게 재물 및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축원 의례로 기능한다. 부산의 동래와 수영 지역의 지신밟기 연행 순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 절차로 아미농악에서 부산고분도리결립까지 이어진 정초 결립이 서구·중구·영도구 등 부산항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 상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은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밀집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하던 지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용왕굿이 해당 결립굿에서 중요한 의례로 자리 잡게 된 문화적 현상의 맥락을 짚어준다. 따라서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용왕굿은 지역적 특성과 생업 기반이 반영된 민속 의례로서 지신밟기 구성의 다양성과 지역성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둘째 마당-조왕굿·장독굿’과 ‘셋째 마당-용왕굿’ 사설에서 아래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부산고분도리결립의 공식 문건¹¹⁵⁾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주현 전승교육사(보유자 후보)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전승 자료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설을 추가로 기술함으로써 지신밟기 사설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승자의 구술 및 실연을 통해 확인된 실제 전승 양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용왕굿은 바다를 수호하는 용왕지신을 부르는 청신을 시작으로 어부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축원, 그리고 한 해의 모든 액을 소멸하는 액막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구성은 기존 지신밟기의 연행 구조를 따른다. 부쇠가 주도하는 용왕굿의 반주에는 자진모리장단이 사용되며 그 사설은 다음과 같다.

115)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의 2010년에 작성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부산고분도리결립」과 「부산고분도리결립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창) 여루~ 지신아 용왕지신¹¹⁶⁾을 놀러보세.
 이 용왕을 모실라고 좋은 달을 가리 받아
 상탕에 목욕하고 중탕에다 수족 씻고
 비나니요~ 비나니요~ 용왕 님전에 비나니요.
 동해바다 용왕님네 서해바다 용왕님네
 남해바다 용왕님네 북해바다 용왕님네
 사해¹¹⁷⁾용왕 은덕으로 이 마을에 어부님들
 일 년 삼백육십오일 사해바다로 출항할제
 만선기¹¹⁸⁾를 대령하고 무사귀환¹¹⁹⁾을 비나니요.
 비나니요~ 비나니요~ 용왕님전에 비나니요.
처받아 보니와 천왕살 내려다 보니와 지왕살이라
남개는 목살이요 불에는 화살기라
화재살도 막아주고 수재살도 막아주자.
오적¹²⁰⁾ 도적도 막아주고 관재구설¹²¹⁾도 막아주자.
살풀자 살을 풀자. 일 년 열두 달 살을 풀자.
정이월 드는 액은 삼월 삼진날 막아주고
삼사월 드는 액은 오월 단오날 막아주고
오륙월에 드는 액은 칠월 칠석날 막아주고
칠팔달 드는 액은 구월구중¹²²⁾에 막아주고
구시월에 드는 액은 동짓달을 막아주고
동지선달에 드는 액은 정월 보름날 막아주자.
 용왕님전 은덕으로 부귀공명 마련하고
 놀러주소~ 놀러주소~ 천년만년 놀러주소.
 일 년 하고도 열두 달 과년 하고도 열석 달에
 삼백 하고도 육십 일을 오늘 같이도 점지하소.

116) [龍王地神] 물과 바다를 다스리는 신적 존재.

117) [四海] 사방의 바다.

118) [滿船旗] 물고기를 배에 가득하게 잡아 실었다는 표시로 배에 매다는 깃발.

119) [無事歸還] 아무 사고 없이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120) [五方] 동·서·남·북·중앙의 적.

121) [官災口舌] 관가로부터 재앙을 입는 일과 남이 나를 비방하거나 헐뜯어서 해를 입는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

122) [九月九重] 가을의 깊은 정취가 느껴지는 시기.

잡귀야 잡신은 물 알로 가고 만복수복만 이리 오소.

부산고분도리결립의 지신밟기 의례는 용왕굿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넷째 마당의 판굿은 결립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한 식후 행사이며, 약사의 개인놀이(들벽구·채상모·북·장구·12발 상모 순)로 한바탕 춤 판이 벌어진다. 모든 개인놀이가 끝나면 술굿 합동소리 “술 먹세¹²³⁾ 술 먹세! 얼른 치고 술 먹세! 미역국에 땀나고 조피국¹²⁴⁾에 김난다!”를 외친 후 휘모리장단으로 흥을 돋운다. 이때 농기를 마당의 중앙에 세우고 모든 결립패는 마당 전체를 멍석말이진으로 신명나게 뛰며 연풍대를 들고 난 후 인사굿으로 마무리한다.

부산에는 부산고분도리결립 외에도 동래와 수영 지역에 각각의 지신밟기가 전승되고 있다. 이들 세 연회는 정월에 마을의 각 가정을 순회하며 제액초복(除厄招福)과 벽사진경(辟邪進慶)을 기원하는 민속 의례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그러나 세 단체의 연행 순서를 비교한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례의 연행 순서와 구성에서는 그 차이점과 지역적 특수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 3> 부산지역 지신밟기 연행 순서 비교표

구분	부산고분도리결립	동래지신밟기	수영지신밟기
시작의례	첫째 마당: 당산굿·우물굿	첫째 마당: 주산지신풀이 둘째 마당: 당산지신풀이 셋째 마당: 샘(우물) 풀이	첫째 마당: 당산풀이 둘째 마당: 한판 춤놀이
가정풀이	둘째 마당: 성주굿·조왕굿·장독굿·곳간굿·정낭굿·마구간굿	넷째 마당: 대청지신풀이·큰방 성주풀이·각방치장풀이·조왕지신풀이·샘(우물)지신풀이·장독지신풀이·도장 지신풀이·마구	셋째 마당: 성주풀이·조왕풀이·장독풀이·우물풀이·곳간풀이·정낭풀이·삼작(대문)풀이·마구간풀이·주신풀이

123) ‘먹읍시다’는 의미로 즉, 여기서 ‘세’는 종결어미로 ‘먹자’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할 것을 청하는 뜻이다.

124) 두부가 들어간 국을 이르는 부산 지역말.

		간지신풀이·뒷간지신풀이·삼작지신풀이·주신풀이	
기타의례	셋째 마당: 용왕굿	없음	기소각제(旗燒却祭)
마무리의례	넷째 마당: 판굿	각 가정 지신풀이 종료 후 마무리	넷째 마당: 마당밧기, 기소각제(旗燒却祭)
특징	생계형 걸립패 활동에서 기원, 성주굿의 정교한 사설과 해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왕굿 연행	동래야류 출신 구성원 참여, 잡색 풍자적 행위와 허튼춤 비중 큼	수영야류 공연 비용 마련 목적, 송액의례가 특징

동래지신밧기는 주산·당산·우물지신풀이를 시작으로 성주·조왕·장독·곳간·마구간·뒷간·삼작풀이 등 세밀한 가정풀이가 이어지며, 특히 동래야류의 잡색에서 유래한 인물들의 풍자적 연행이 두드러진다.¹²⁵⁾ 수영지신밧기는 당산풀이와 한판 춤놀이, 가정풀이를 거쳐 기소각제(旗燒却祭)로 마무리되는데 기를 태워 액을 소멸하는 송액의례(送厄儀禮)가 포함되어 수영야류와 결합된 특수성을 보여준다.¹²⁶⁾

이에 비해 부산고분도리걸립은 당산굿과 동네 우물굿을 거쳐 성주굿과 가택 내 가정풀이가 이어지고 용왕굿으로 마무리한 후에 판굿을 통해 대동놀이를 확장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성주굿의 세밀한 사설 구성과 조왕굿·장독굿·곳간굿·정낭굿·마구간굿 순으로 연행되는 가정풀이, 그리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용왕굿 구성은 다른 지역 지신밧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설을 포함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전체 지신밧기의 사설을 상쇠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125)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야류보존회, 『東來들놀이』, (주)동아인업·도서출판 地平, 2001, 259-260쪽.

126)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수영 민속 총집』, 청송인쇄사, 2009, 569-572쪽.

<표 4> 부산고분도리걸립 마당 구성과 사설 연희자

구분	구성	연희자
첫째 마당	작은소리: 당산굿, 동네 우물굿	부쇠
둘째 마당	큰소리: 성주굿(성주풀이, 목재 고르기, 집터 잡기, 일꾼 모으기, 집짓기, 왕토치기, 축원하기, 살풀이)	상쇠
	작은소리: 조왕굿, 장독굿, 꽃간굿, 정낭굿, 마구간굿	부쇠
셋째 마당	작은소리: 용왕굿	부쇠
넷째 마당	악사의 개인놀이, 판굿	걸립패

<표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쇠는 ‘큰소리(성주굿)’, 부쇠는 ‘작은소리(성주굿을 제외한 모든 지신풀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상쇠·부쇠 분담 구송 체계로 정착하였다. 아미농악단의 풍물 기량이 집약된 넷째 마당-판굿은 동래야류와 수영야류의 영향으로 잡색의 역할 비중이 큰 동래·수영 지역의 지신밟기와는 또 다른 음악적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부산고분도리걸립은 지역민의 공동체적 결속을 드러내는 전통 민속예술로서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4. 마무리

한국전쟁의 여파로 격동의 시기를 겪던 1950년대, 전쟁으로 집과 고향을 잃은 풍물꾼들은 부산 서구의 아미동에 모여 지역민의 아픔을 달래고 복을 기원하는 소리를 울려 퍼뜨렸다. 바로 부산고분도리걸립의 근간이 되는 아미농악단의 지신밟기 소리이다. 너무도 고단한 현실 속에서 묘지의 비석을 집터 삼아야 했던 피란민들에게 아미농악단의 지신

밟기, 특히 성주굿 사설에 등장하는 ‘좋은 집터에 양재(良材)로 지은 집’은 상상만으로도 깊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미농악단의 지신밟기 소리는 70여 년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예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그 결과 오늘날 부산고분도리걸립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은 총 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연행된다. 첫째 마당 당산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지신을 호명하여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만복수복을 기원한다. 이어지는 동네 우물굿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청정수를 기원함으로써 생명과 풍요의 상징성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재해와 식수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이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둘째 마당은 성주굿과 더불어 조왕굿, 장독굿 등 가택 내 주요 공간을 대상으로 집안의 안녕과 복덕(福德)을 기원하는 가정풀이로 연행된다.

부산고분도리걸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성주굿이다. 성주의 탄생에서부터 각 가정의 수호신으로 좌정하여 복을 기원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영웅 서사구조를 형성한다. 성주의 탄생부터 인간적 과오로 인한 귀양과 고난, 복권 이후 명당에 홀륭한 재목(材木)으로 집을 지어 백성을 위하고 가택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신화적 기원·인간적 성장·사회적 복귀라는 삼단 구조를 따른다. 이때 아니리와 창으로 교차되는 상쇠의 구송 방식과 굿거리장단에서 자진모리장단과 휘모리장단으로 이어지는 점층적 리듬 전개, 운율의 규칙성과 반복 등은 공동체의 염원을 극대화하며 서사적 긴장감과 청중의 정서적 몰입을 유도하는 연행미학적 성취를 보여준다. 셋째 마당의 용왕굿은 동래와 수영 지역의 지신밟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자적 연희로 서구·중구·영도구 등 부산항 인근 어업 관련 상권을 걸립패의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던 지역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고분도리걸립에서 연행되는 의례가 다양

하여 상쇠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상쇠는 ‘큰소리(성주굿)’, 부쇠는 ‘작은소리(지신풀이)’를 담당하는 상쇠·부쇠의 분담 구송 방식이 고유한 형식으로 정착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마당 판굿은 당대 최고 풍물 예인들의 기예(技藝)로 단련된 아미농악단의 연회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음악적 완성도와 예술성이 매우 높음을 입증하는 주요한 논거로 작용한다.

이 모든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부산고분도리걸립은 단순한 민속 의례적 기능을 넘어 지역민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문화적 표현의 전형으로서 시대를 관통하는 공동체적 결속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분도리걸립을 비롯한 전통 민속예술 분야의 전승 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통 민속예술 전반이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승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전승 과정과 사설의 구성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증언하는 시대적 사료로 기능함과 동시에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무형유산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산고분도리걸립을 단순한 원형 그대로의 보존 대상이 아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교육자료로서 기능하고, 궁극적으로 부산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인 부산고분도리걸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부산 고분도리걸립』, 2010.
- _____, 『부산고분도리걸립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2010.
2005. 9. 24. 「부산 서구 고분도리 걸립 무대공연」 공연 팸플릿.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pVgpGH0OChfgW9lXxbPmBYdHBFhe6vz> (검색일: 2025.9.25.)
2006. 9. 16. 「부산 서구 고분도리걸립 풍물굿」 공연 팸플릿.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pVgpGH0OChfgW9lXxbPmBYdHBFhe6vz> (검색일: 2025.9.25.)
2025. 8. 9. 「農巖 정우수의 一生」 공연 팸플릿.
2026. 4. 18. 「2026 구덕골 전통민속예술축제」 공연 팸플릿.
2023. 5. 20. 구덕골 전통민속예술축제 제15회 부산고분도리걸립 공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Vj-eMSNNSA> (검색일: 2025.8.5.)
2023. 9. 9. 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 ‘국악이 좋다’ 부산고분도리걸립보존회 초청공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PeN3T0pWpI> (검색일: 2025.8.5.)
2024. 5. 18. 구덕골 전통민속예술축제 제16회 부산고분도리걸립 공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rDXMJK_fCo (검색일: 2025.8.5.)
2024. 9. 7. 부산인류무형유산 부산고분도리걸립 공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nzIvNV1ovE> (검색일: 2025.8.5.)
2025. 6. 14. 구덕골 전통민속예술축제 제17회 부산고분도리걸립 공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SfR-BIQ6CE> (검색일: 2025.8.5.)

2024. 2. 23. 정우수, 이주현 ‘큰소리-성주굿’ 사설 채록, 구덕민속예술관.

2024. 4. 24. 정우수, 이주현 ‘큰소리-성주굿’ 사설 채록, 수영구 연습실.

2024. 7. 31. 정우수, 이주현 ‘큰소리-성주굿’ 사설 채록, 수영구 연습실.

2025. 7. 9. 이주현 ‘작은소리-지신풀이’ 사설 채록, 수영구 연습실.

『동아일보』, 『조선일보』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 Date.naver](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검색일: 2025.9.5.)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 19560218000031](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560218000031) (검색일: 2025.9.13.)

2. 단행본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야류보존회, 『東來들놀음』, (주)동아인업·도서출판 地平, 2001.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수영 민속 총집』, 청송인쇄사, 2009.

(재)부산문화재단, 『부산민속예술을 사랑한 영원한 농악 상쇠 효담 김한순』, (재)부산문화재단, 202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디자인이끼, 2023.

강용권, 『民俗紀行』,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주)디자인인트로, 2011.

_____, 『한국민속예술사전 농악』, (주)디자인인트로, 2016.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3책 (농악·풍어·민요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부산광역시,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사의 역사』, (주)도서출판 예린원, 2023.

_____,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201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뿌리찾기 4 부산의 당제』, 부산인쇄협동조합, 2005.

_____, 『부산의 자연마을 제1권』, 부산인쇄협동조합, 2006.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부산직할시, 1991.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주경업, 『역사학 문화현장 체험 부산학, 길 위에서 만나다』, 부산민학회, 2011.

황경숙, 「아미동의 대표적 연희 아미농악」, 『離郷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 사람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3. 논문

김도환, 「부산지역 무속의례 양상과 연행과정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김선영, 「<부산고분도리결립>의 들벅구놀이 연구」, 『영남춤학회誌』, 12권 3호, 2024, 33-68쪽.

김정용, 「부산고분도리결립농악 성주풀이에 대한 음악구성 연구」, 세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손태도, 「전통 공연예술인 면담 조사 자료」,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8집, 2022, 225-312쪽.

이주현, 「부산 고분도리 결립의 풀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최자운, 「부산·경남지역 지신밟기 공연의 추이와 의의」, 『한국민요학』, 40, 2014, 223-245쪽.

황경숙, 「초기 아미농악단의 형성과정과 연희기반-구술증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28, 2012, 188-217쪽.

<Abstract>

The Transmission Process and Private Study of Busangobundorigullip

Kim, Sun-Young*

Busangobundorigullip is a representative intangible heritage that combines folk art and folk beliefs of the local community with Jisinbalpgi, which was performed from the first four days of the lunar calendar to the fifteenth of January to the fifteenth of January of the lunar calendar to pray for the safety and safety of the village.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transmission process and editorial of the Jisinbalpgi of Aminongak, which was formed mainly in Ami-dong, Seo-gu, Busan after the Korean War, and has been inherited and developed into today's Busangobundorigullip.

Busangobundorigullip consists of a total of four yards, Dangsan-gut, Well-gut, Seongju-gut, Yongwang-gut, and Pangut, and performs a ritual function to pray for the well-being and blessings of the village community and each family. In particular, Seongju-gut in the second yard shows the achievement of a performance aesthetic that maximizes the aspirations of the community through detailed editorials with a heroic narrative structure and gradual rhythm development. Third, Yongwang-gut in the yard is positioned as an independent performance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ulippa, which uses the fishing-related commercial district near Busan Port as its main stage. In

*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addition, the method in which Sangsoe and Busoe share Seongju-gut and Jishin-puri, respectively, has been established in the unique form of Busan Gobundori Gulip to effectively perform rich editorial content and various rituals.

These characteristics of Busangobundorigullip are of great significance as a cultural expression of a region that reflects the life, values, and solidarity of the community beyond simple folk rituals. In the reality that the foundation for transmission in the field of traditional folk art is shrinking, it is very urgent to develop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sustainable intangible heritage. This study re-examines the identity of local intangible heritage and its cultural value by analyzing the transmission process of Busangobundorigull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itorial.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play a role as an educational material for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in the future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angible heritage education progra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ultimately lead to a follow-up study that explores the Busangobundorigullip, an important cultural asset in-depth.

Key Words: Busangobundorigellip, Geollip, Jishin-balgi, Seongju-gut, Seongju-puri, Aminongak

■ 논문접수 : 2026년 06월 29일

■ 심사완료 : 2026년 08월 09일

■ 게재확정 : 2026년 08월 09일

<부록>128) 부산고분도리걸립 둘째 마당-성주굿

① 성주풀이

(아니리) 여봐라 북쇠야!
우리가 밤낮 응막깡깡¹²⁹⁾만 할 것이 아니고
성주님을 모셔다 이 집 가정에 좌정¹³⁰⁾을 시키는 것이었다.
천개는 자하고 지벽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상겼고¹³¹⁾ 사람은 인시에 상겼다.¹³²⁾
그중에 성주 부친이 상겼고, 그중에 성주 모친이 상겨야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궁대왕¹³³⁾이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부인¹³⁴⁾이 분명하다.
옥질부인 거동보소, 슬하에 일점 혈육 없어
재미쌀¹³⁵⁾ 씻고 실어 명산대천¹³⁶⁾ 찾아가서
상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 씻고¹³⁷⁾
무주남산¹³⁸⁾ 지치달라¹³⁹⁾ 칠성당¹⁴⁰⁾ 모아놓고

-
- 128)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의 「부산고분도리걸립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와는 달리 정우수와 이주현의 구술 고증 및 재연을 통해 추가로 보완한 사설은 글 아래 밑줄로 표시하였다. 또한 부산 지역말의 발음을 최대한 반영하고 한자어는 각주로 병행 표기하였다.
- 129) 응박깡깡의 변음(變音)으로 정초 지신밟기를 행할 때의 굿거리장단을 일컫는 부산 지역말로, 응은 징, 박은 북과 장구, 깡깡은 팽과리 소리의 음을 소리대로 부른 소리음이다.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258쪽.
- 130) [坐定] 앉음의 공대말.
- 131) ‘생겼고’의 부산 지역말.
- 132) ‘천개어자 지벽어축 인생어인(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에서 유래한 말로 보인다. 하늘은 자시(子時)에 땅은 축시(丑時)에 열리며, 사람은 인시(寅時)에 생겨났다는 뜻으로 우주와 만물이 생성되는 순서를 십이지(十二支)의 시간에 비유하여 설명한 구절이다.
- 133) [天宮大王] 성주풀이 무가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로 성주신의 부친으로 등장.
- 134) 옥진부인(玉眞夫人)의 변음(變音)으로 보인다. 옥진부인은 성주신의 모친으로 자식을 얻기 위해 온갖 정성과 공덕을 쌓는 인물로 묘사된다.
- 135) 제(齋)를 지내는 데 사용하는 쌀.
- 136) [名山大川] 이름난 산과 큰 내.
- 137)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신령이나 대상 앞에 예를 갖추는 준비 행위.
- 138) [無住南山] 한없이 높은 산.

향초에 불을 밝혀 소지¹⁴¹⁾ 삼장¹⁴²⁾을 드린 후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전 비나이다.
 애기 방성¹⁴³⁾ 생기라고 칠성님전 비나이다.
 옥황상제가 알옵시고¹⁴⁴⁾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그달부터 태기 있어 온갖 음식¹⁴⁵⁾이 맛이 없고
 열 손가락이 뇌곤¹⁴⁶⁾하고 열 발가락도 뇌곤하고
 남 보기는 피병 같고 이내 일신은 장차 고단해 오는구나.
 세월이 장차 여루¹⁴⁷⁾ 하여¹⁴⁸⁾ 칠팔 달이 되었다.

(창) 넘노나네¹⁴⁹⁾~ 넘노나네~ 청룡인가~ 황룡인가.
 굶실굶실¹⁵⁰⁾ 잘도 논다. 어찌 아니 좋을소냐.
 세월이 장차 되었으니 일동 귀동자 탄생하야
 그 이름 안식국이라 짓고 비호는 성주씨 지으니
 한 살 먹어 손님¹⁵¹⁾하고 두 살 먹어 홍진¹⁵²⁾하네.
 세 살 먹어 걸음 배워 네 살 먹어 말 배우고
 다섯 살에 입학하야 여섯 살에 졸업 맞고
 일곱 살에 무불통지¹⁵³⁾ 어찌 아니 좋을소냐.
 세월이 장차 여루 하여 십오 세가 되었구나.

139) ‘치달다’ 마구 위쪽으로 달려 올라가.

140) [七星堂] 북두칠성(北斗七星)으로 상징되는 칠원성군을 모신 집.

141) [燒紙] 부정(不淨)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희고 얇은 종이를 불
 살라 공중으로 올리는 행위.

142) [三藏] 천지인(天地人)에게 석장(세장)을 올리는 행위.

143) [放聲] 소리를 내다. 즉,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칠성
 님께 올려 자손의 번영과 집안의 생기를 기원.

144) ‘아시고’의 부산 지역말.

145) ‘음식’의 부산 지역말.

146) ‘노곤’의 부산 지역말.

147) [如流] 물의 흐름과 같다는 뜻으로 세월이 빠름을 나타내는 말.

148) ‘하여’의 부산 지역말.

149) ‘넘놀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며 노는 모습을 이르는 말.

150) 여럿이 구불구불하게 물결을 이루며 부드럽고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
 내는 말.

151) 천연두.

152) [紅疹] 홍역.

153) [無不通知] 무슨 일이든지 두루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

허혼¹⁵⁴) 청혼을 가리¹⁵⁵)받아
 장개¹⁵⁶)가던 삼일 만에¹⁵⁷)본댁을 소박하고
 부모님업게 불효하고 일가업게 우애 없어
 대동동편¹⁵⁸)에 내어놓고 귀양 삼년을 마련했네.
 무주야 남산에 짓치달아 낭쿨¹⁵⁹) 비어서¹⁶⁰) 배를 모아
 압록강변에 배 띄어¹⁶¹) 놓고 삼 년 묵을¹⁶²) 양식도 싣고
 삼 년 입을 의복 싣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황토섬 귀양살이 어서 가자. 춘풍에다 돛을 달아
 황토섬을 당도 하여 돌미륵¹⁶³)을 집을 삼고
 새 짐승을 벗을 삼아 세월을 장차 보낼 적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삼 년이 장차 되었구나¹⁶⁴).
 먹던 양식 떨어지고 입던 의복도 떨어져서
 산채¹⁶⁵) 해채¹⁶⁶) 먹고 나니 온 만신에 털이 나서
 무주야 짐승이 되었구나. 날아든다~ 날아든다.
 청조새¹⁶⁷) 한 마리 날아든다. 새야~ 새야~ 청조새야.
 편지 일장을 전해주소. 붓이 있어서 글을 쓸까.
 맥¹⁶⁸)이 있어 글을 쓸까. 지 손가락 깨어가주¹⁶⁹)
 만리장성 편지 써서 청조새 입에다 물렸던가.

-
- 154) [許婚] 혼인을 허락.
 155) ‘가려’의 부산 지역말.
 156) ‘장가’의 부산 지역말.
 157) 사흘 만에.
 158) [大洞東便] 큰 동네 동쪽에.
 159) 낭계(낭계)의 변음으로 보이며 ‘나무’의 부산 지역말.
 160) ‘베어’의 부산 지역말.
 161) ‘띄워’의 부산 지역말.
 162) ‘먹을’의 부산 지역말.
 163) 커다란 바위 또는 미륵바위.
 164) ‘되었구나’의 부산 지역말.
 165) [山菜] 산에서 나는 나물.
 166) [海菜] 바다에서 나는 나물.
 167) [靑鳥] 파란 빛깔을 띤 새로 길조를 상징.
 168) ‘떡’의 부산 지역말.
 169) ‘깨어 가지고’, ‘깨물어서’ 피를 내는 행위.

청조새야 거동 보소. 그 편지를 입에 물고
 천장만장 구만장¹⁷⁰⁾ 솟아 성주님 집으로 당도하니
 성주야 모친 거동 보소. 자식으로¹⁷¹⁾ 이별하고
 골속에도 병이 들어 백약이라도 무효로다.
 날아든다~ 날아든다~ 청조새 한 마리 날아든다.
 새야~ 새야~ 청조새야 성주님 편지를 전하더냐.
 그 편지를 띄어 보고 나라님업게 상소하야
 다시 그 배를 내어 타고 은삼¹⁷²⁾ 녹용을 가득 싣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성주님 모시러 어서 가자.
 춘풍에다 돛을 달아 황토섬을 당도하니
 성주야 일신은 간 곳 없고 우연한 짐승이 앉았구나.
 그 짐승을 높이 싣고 은삼 녹용을 맥였더니
 온 만신에 털이 빠져 성주야 일신이 분명하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우리야 고국을 어서 가자.
 황토섬아 잘 있거라. 돌미륵도 잘 있거라.
 새 짐승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가네.
 우리야 고국을 나는 가네. 춘풍에다 돛을 달아
 웅막 캥캥 하는 소리 성주 회색¹⁷³⁾이 되었구나.
 성주님을 모셔다가 이 집 가정에 좌정하소.
 (후주- 자진모리장단)

② 목재 고르기

(아니리) 여봐라 복쇠야!
 전에는 성주님이 부모업게 불효하고
 일가 업게 우애 없고 주색에 방탕하야 저 귀향살이를 갔다 왔지마는
 성주님이 마음을 개정¹⁷⁴⁾을 하여서 저 나라님업게 상소하야
 술씨 서말서홉¹⁷⁵⁾을 구해다가 무주 남산에 흘쳐서 그 술을 길러서

170) 아주 높이 높이.

171) ‘자식’의 부산 지역말로 ‘-로’는 목적격조사로 사용된다.

172) ‘인삼’의 부산 지역말.

173) ‘화색(和色)’의 부산 지역말.

174) [改正] 고쳐서 바르게 된다.

175) 계량 단위로 18.039 ml, 홉은 180.39 ml.

이 많은 백성들 집을 지어줄 그럴 안을 내었더랍니다.
꼭 무주 남산에다 솔씨를 흘리는 것이었다.

(창) 무주 남산 던졌네! (자진모리 한 장단 간주)
그 솔이 점점 자라나 청장목¹⁷⁶⁾ 되었네.
청장목이 자라나 황장목¹⁷⁷⁾이가 되었네.
황장목이 자라나 솔이 기둥이 되었네.
그 재목을 내올라고 서른서내¹⁷⁸⁾ 역군들
옥도끼를 들러메고 뒷동산에 높이 올라
한 낭클¹⁷⁹⁾ 바라보니¹⁸⁰⁾ 까막까치 집을 지었다.
어허 그것도 부정하다.
또 한 낭클 바라보니 황새 덕새가 집을 지었다.
어허 그것도 부정하다.
또 한 낭클 바라보니 온 산천 뽕거지¹⁸¹⁾가 이리 칭칭 감졌구나.
어허 그것도 부정하다.
또 한 낭클 바라보니 성주님 집지을 재목이라
그제 솔가지를 갈려다가¹⁸²⁾ 이 집 대들보¹⁸³⁾를 장만하고
또 한 가지를 갈려다가 추녀장목¹⁸⁴⁾을 장만하고
또 한 가지를 갈려다가 앞도리¹⁸⁵⁾를 장만하고
또 한 가지를 갈려다가 서까래¹⁸⁶⁾를 장만하고
일육수¹⁸⁷⁾ 이칠화¹⁸⁸⁾ 사면을 눌러주자. (후주- 자진모리장단)

176) [靑腸木] 푸른 나무(어린나무).

177) [黃腸木] 다 자란 누른 나무(성장한 나무).

178) 서른서넛. 서른하고도 서넛 명.

179) ‘나무를’의 부산 지역말.

180) ‘바라보니’의 부산 지역말.

181) 뽕넝쿨.

182) 가려, 가리어(골라).

183) 집을 받치는 가장 큰 들보.

184) 전통 목조 건축에서 지붕의 귀 부분에서 처마 하중을 받는 긴 구조재.

185) 집이나 다리 따위를 세울 때 들보와 직각으로 기둥과 기둥을 건너서 위에 있는 나무.

186) 지붕판을 만들고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

187) [一六水] 물로 인한 재해를 뜻한다.

188) [二七火] 불로 인한 재해를 뜻한다.

③ 집터 잡기

(아니리) 여봐라 북쇠야!

우리가 성주님 집 나무는 대다¹⁸⁹⁾ 났는데

성주님 집을 지을라 하면 집터를 봐야 집을 짓는 것이었다.

성주님 집터 분다하니 온갖 풍수가 패철¹⁹⁰⁾ 날이나¹⁹¹⁾ 차고

술잔이나 얻어 자실라고¹⁹²⁾ 막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중에 일등 대풍수가 절람산¹⁹³⁾ 좋은 쇠를 꺼꾸러메¹⁹⁴⁾너적차고¹⁹⁵⁾

저 서울로 바리 올라가 삼각산¹⁹⁶⁾ 중허리서부터

뺏아 내려오는 것이었다.

(창) 서울로 지치달라! (자진모리 한 장단 간주)

삼각산 일지봉¹⁹⁷⁾ 아래 주루루 홀터서¹⁹⁸⁾ 금강산¹⁹⁹⁾이가 되었네.

금강산에 줄기 받아 이리저리 대녀서²⁰⁰⁾ 태백산²⁰¹⁾이가 되었네.

태백산에 줄기 받아 이리저리 대녀서 경상도로 내려와

금정산²⁰²⁾이가 되었네.

금정산 줄기 받아 이리저리 대녀서 구덕산²⁰³⁾이가 생겼네.

구덕산 줄기 받아 시약산²⁰⁴⁾이가 생겼네.

189) ‘가져다 놓다’의 부산 지역말.

190) 집터를 정할 때 풍수가가 사용하던 나침반.

191) 날은 셀 수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말하지만 “패철 날이나 차고”는 일종의 비꼬는 말로 보인다.

192) ‘먹을려고’의 부산 지역말.

193) [節南山] 우뚝 솟은 남산으로 『시경』 「소아」 제4편 ‘절남산지습’에 나오는 산.

194) 꺼꾸러는 ‘거꾸러’의 부산 지역말로 ‘거꾸러 메어’를 뜻한다.

195) 옆구리에 물건을 걸친 모양을 이르는 부산 지역말.

196) [三角山] 서울의 북쪽과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산.

197) 삼각산의 세 봉우리를 합쳐 ‘하나의 주봉으로 본다’는 의미로 산세의 상징적 표현이다.

198) ‘홀어서’의 부산 지역말.

199) [金剛山] 강원도 회양군과 통천군, 고성군에 걸쳐 있는 산.

200) ‘다녀서’의 부산 지역말.

201) [太白山]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산.

202) [金井山] 부산의 금정구·북구·동래구, 경상남도 양산시까지 이어지는 산.

203) [九德山, 舊德山]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과 사하구 당리동 및 사상구 학장동에 걸쳐 있는 산.

시약산 줄기 받아 이 집터가 되었구나. (후주- 자진모리장단)

④ 일꾼 모으기

(아니리) 여봐라 북쇠야!

우리가 성주님 집터하고 집 나무는 내다 났는데
성주님 집터를 닦을라 하면 일꾼이 있어야 집터를 닦는 것이었다.
꼭 일꾼을 한번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창) 일꾼이 들어온다. 일꾼이 들어온다.

석자²⁰⁵⁾수건을 목에 걸고 허덜허덜²⁰⁶⁾ 들어온다.

자갈치서 올라온다 영산고개²⁰⁷⁾서 넘어온다.

대티고개²⁰⁸⁾서 넘어온다.

가래줄²⁰⁹⁾을 걸어라! (자진모리 한 장단 간주)

얼릴릴~ 상사디²¹⁰⁾ 이 집터를 닦아내면 아들 오 남자를 부라주고²¹¹⁾

얼릴릴~ 상사디 이 집터를 닦아내면 딸 이 형제 부라주고

얼릴릴~ 상사디 일육수 이칠화 사면을 눌러주자.

(후주- 자진모리장단)

⑤ 집짓기

(아니리) 여봐라 북쇠야!

우리가 집 나무도 내다 놓고 집터도 보고 일꾼도 들어왔으니

집을 한번 짓는 것이었다.

(창) 집 짓자~ 집 짓자~ 집 짓자~ 집 짓자.

용의 머리다가 터를 닦고 학의 등에다가 집을 짓고

산 우에다가 쇠를 걸어 거적 날매를 집 엮고²¹²⁾

204) [蔚藥山]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는 산.

205) 자는 길이의 단위로 한 자는 30.3cm.

206) ‘허덜시리’의 변형으로 움직임의 강도나 빠르기를 강조하는 부산 지역말.

207) 부산 중구 영주동과 대청동·보수동을 잇는 고갯길.

208) 괴정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

209) 흙을 파서 갈아엎거나 퍼내는 데 쓰는 기구(가래)의 양옆에 매단 줄.

210) ‘얼릴릴 상사뒤여’는 달구질(달구로 집터를 닦으면서 부르는 노래)에서 여러 사람이 받는 후렴구.

211) ‘불려주고(늘려주고)’의 부산 지역말.

목괭이²¹³)를 덥석하야²¹⁴) 사모²¹⁵)에다가 평경²¹⁶)달아
 동남풍이 디리불면²¹⁷) 평그랑 소리가 요란하다.
 (후주- 자진모리장단)

⑥ 왕토치기²¹⁸)

(아니리) 여봐라 복쇠야!
우리는 집을 잘 지어놨는데 왕토를 칠라하면²¹⁹)
산재²²⁰)를 읊어야²²¹) 왕토를 치는 것이었다.

(창) 산재읍자~ 산재읍자~ 이내 일신을 산재읍자.
산재읍자~ 산재읍자~ 이내 일신을 산재읍자.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⑦ 축원하기

(아니리) 아따²²²) 왕토가 거므스름 하이 잘 발랐다.²²³)
우리가 집을 짓고 왕토까지 쳐놔으니 축원을 하는 것이었다.

(창) 축원하자~ 축원하자~ 축원하자~ 축원하자.
 이 집 지은 지 삼 년 만에
 아들이 나면은 효자 나고 딸이 나거들랑 열녀 나고
 소가 나거들랑 왓대 나고 말이 나면은 용마²²⁴) 나고

212) “산 위에다 쇠를 걸어(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거적(짚으로 엮은 명석) 날매(날마다) 덮어 집을 엮는다.” 즉, 집을 튼튼하게 짓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213) 곡괭이.

214) [接席] ‘덥석하야’, 자리를 가까이 대어 앉아.

215) 추녀마루가 지붕 가운데로 물려 네모뿔 모양으로 된 지붕.

216) ‘풍경’의 부산 지역말.

217) ‘거침없이 불면’의 부산 지역말.

218) 기와집을 지을 집 안 지붕의 아래쪽에 흙을 쳐올려 미장하는 것을 이르는 말.

219) 바를려고 하면.

220) [山林] 산에서 나는 목재.

221) ‘엮어야’의 부산 지역말.

222) 놀람, 감탄 등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

223) ‘발랐다’의 부산 지역말.

개가 나면은 벽구²²⁵⁾ 나고 닭이 나면은 봉황이 나라.
(후주- 자진모리장단)

⑧ 살풀이

(아니리) 여봐라 복쇠야! 우리가 할 것은 일쭙²²⁶⁾ 다했다.
정월 초하룻날²²⁷⁾ 시작하여 선달그믐날²²⁸⁾까지
이 집에 안가태평²²⁹⁾하고 부귀공명²³⁰⁾하고 소원성취²³¹⁾하도록
우리가 살을 한번 잘 풀어주고 가는 것이었다.

(창) 살풀자~ 살풀자~ (자진모리 한 장단 간주)
살풀자~ 살풀자~ 온갖 살을 풀어주자.
쳐받이²³²⁾ 보아라 천왕살²³³⁾ 내려다 보아라 지왕살²³⁴⁾
남개²³⁵⁾ 떨어졌다 목살²³⁶⁾이면 물에 빠진 수살²³⁷⁾이라.
남우게는²³⁸⁾ 악담살²³⁹⁾ 재물에는 손재살²⁴⁰⁾ 온갖 살을 풀어주자.
정월이라 십오일 망월²⁴¹⁾살을 풀고
이월이라 영등날²⁴²⁾ 영등살을 풀고
삼월이라 삼진날²⁴³⁾ 연자²⁴⁴⁾살을 풀고

-
- 224) [龍馬] 용같이 생겼다는 상상의 말.
 - 225) 충직한 개, 귀가 서지 않은 한국의 토종견을 이르는 말.
 - 226) 부사 ‘일쭙’의 부산 지역말로 거의, 대개, 대부분이라는 말과 같은 뜻.
 - 227) 음력 1월 1일.
 - 228) 음력 12월의 마지막 날로 음력 12월 30일 또는 음력 12월 29일.
 - 229) [安家太平] 집안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함.
 - 230) [富貴功名] 물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231) [所願成就]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룸.
 - 232)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동작.
 - 233) [天王煞] 하늘의 재앙.
 - 234) [地王煞] 땅의 재앙.
 - 235) 나무에.
 - 236) [木煞] 나무에 붙어 있다는 흉한 귀신 또는 그것에 의한 재앙.
 - 237) [水煞] 물에 있는 흉한 귀신. 또는 그것에 의한 재앙.
 - 238) ‘남에게는’의 부산 지역말.
 - 239) [惡談煞] 남을 헐뜯거나 저주하는 말을 듣는 재앙.
 - 240) [損財煞] 재물을 잃어버리는 재앙.
 - 241) [望月] 보름달.
 - 242) [迎登日] 음력 2월 1일(초하루)에 바람의 신인 영등할미가 내려온다는 날.

사월이라 초파일날²⁴⁵⁾ 관등²⁴⁶⁾살을 풀고
 오월이라 단오날²⁴⁷⁾은 추천²⁴⁸⁾살을 풀고
 유월이라 유두날²⁴⁹⁾ 유두살을 풀고
 칠월이라 칠석날²⁵⁰⁾ 오작교²⁵¹⁾살을 풀고
 오동지 육선달²⁵²⁾ 온갖 살을 풀어주자.
 (후주- 자진모리장단으로 시작하여 휘모리장단으로 맺음)

243) 음력 3월 초사흘날은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 하여 제비집을 손질하고, 꽃잎으로 전을 부쳐서 먹고 춤추며 노는 화전놀이의 풍습이 있다.

244) [燕子] 제비.

245) [初八日] 음력 4월의 초여드렛날.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

246) [觀燈] 음력 4월 8일 등을 달아 기념하는 날.

247) [端午] 음력 5월 5일로 단오떡을 해 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는 날.

248) [鞦韆] 타는 그네.

249) [流頭] 음력 유월 보름날.

250) [七夕] 음력 칠월 초이렛날의 밤.

251) [烏鵲橋]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위해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銀河)에 놓는 다리.

252) 동지선달에 눈이 많이 내리면 오뉴월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